금주일언 모든 생각이, 나고 죽음을 버리면 능히 괴로움의 끝을 삼으리니, 항상 마땅히 미묘함을 들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달으리라.
〈법구경·유념품 1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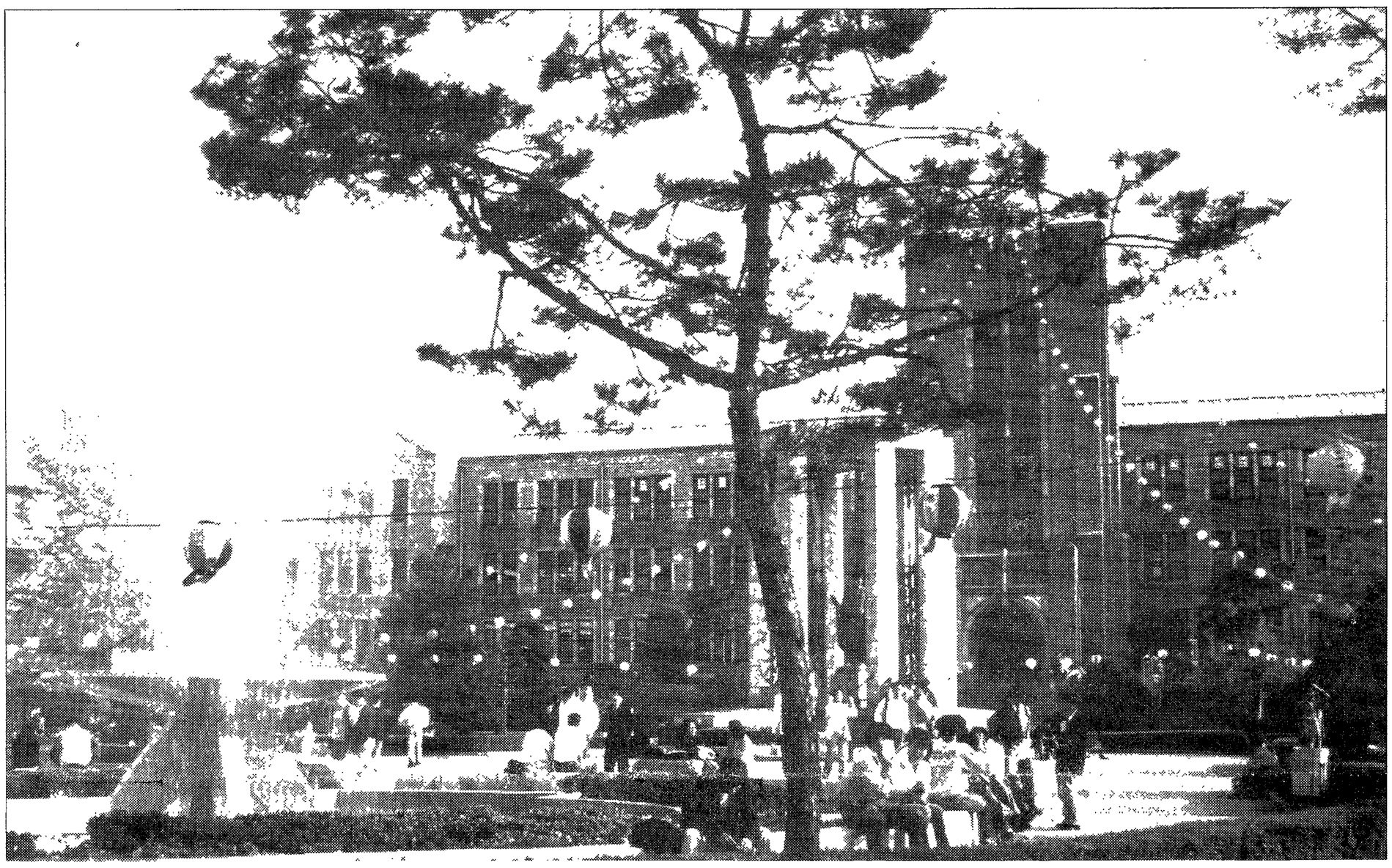
東大新聞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최순열
주간 이준성
부주간 이익성
편집국장 곽주영
편집장

펴낸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제 1200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5월 6일 (월요일) 1

미래동국을 예감한다



지혜에 자비실어 길을 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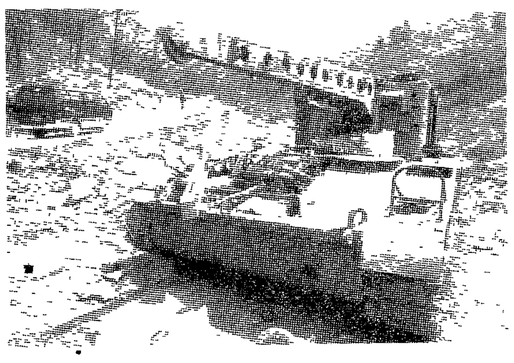
— 개교90주년에 부쳐 —

장 호(시인·본교 명예교수)

오월에도 초여드렛날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자
길은 동으로 나 있다。
참된 인간 만드는 열린 교육 90년
동국대학교가 그래 왔다。
일찍이 달마가 그랬듯이
오늘에사 인류의 내일을 걱정하는
세계의 석학들도 입을 모아 말한다。
길을 찾아 동쪽으로 나서라 고。
삼킬듯 굽이치는 과학문명의 강줄기
덮씌울듯 솟구치는 인간회복의 사출기 너머
더불어 활개칠 정도세계가 손짓한다。
잽싸기로 말하면 저 사특스런 승냥이
이리만큼 하랴
사납기로야 어디 간사한 여우 늑대를 당하랴。
사자 호랑이도 근접하지 못하는 위엄으로
서두를 것 없다。꾸준하거라 코끼리같이
한눈 팔 일 없다。한결같아라 코끼리 같이。
시대의 모래먼지 역사의 진흙탕에 뒹굴지라도
수렁에 빠진 새끼들도
지혜에 자비 담아 건져올리며
너부죽한 걸음걸이 거침없어라。
밤하늘을 헤쳐가는 달빛아래 반짝이며
10만 동무들이 강물처럼 뒤따른다。
지혜에 자비 실어 길을 열어라。
경주 남산 부처골
천년 미소를 머금은 채
바위 안에 숨쉬는 돌부처같이
또 천년을 빛나거라 동국대학교。
21세기, 새아침을 여느라
허덕이는 젊음들아。
오월하고도 초여드렛날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가에 가서
머리를 감자。
길은 동쪽으로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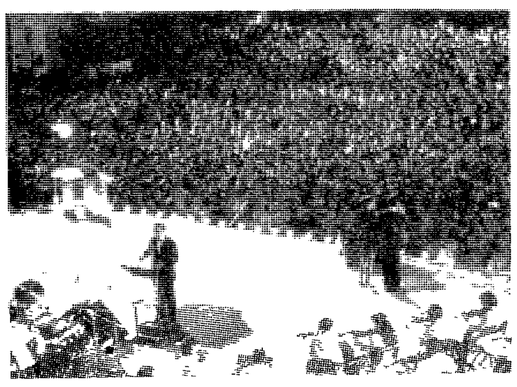
지면안내

주한 미군, 필요한가 6



지난달 23일 동두천 화재 사건 이후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르뽀를 통해 화재현장과 유가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아본다.

개교기념행사, 그것이 알고 싶다 7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은 본교는 오는 8일 개교기념식을 시작으로 KBS열린음악회, 윤이상음악회 등 다채로운 개교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본지는 개교기념 1학기 주요행사를 집중조명해 본다.

동국 90년 자랑스런 90인 8, 9

1906년 본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90주년이 되는 올해까지 본교는 정치계 문학계 학술계 예술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 개교 90주년을 맞아 본지가 자랑스런 동국인 90인을 선정했다.

설문조사 10

개교 90주년과 본지 지령 1200호 발행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교와 동대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전붓골만필 필자에게 듣는다 11

본지와 함께 시대를 살아온 붓골만필 필자들에게서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시대 상황을 들어본다.

나는 동국 90년을 이렇게 본다 12

본교와 인연을 맺은 쉐리단 교수 등 3명이 바라보는 동국 90년을 알아본다.

축 개교 90 주년 <1906-1996>

100세 靑年?

전통을 내세워 보수에 빠지지 않고,
나태와 타성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온
진취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에
몹시 고민하고, 개교 90주년의 기쁨보다
개교 1백주년의 비전을 생각하는 대학,
드높은 나이와 경륜에 어울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설 다짐을 하는 대학—
그 이름, 한국의 민족사학 동국대학교 입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개교 90주년 기념식

공로·장기근속 표창

개교 90주년 기념식이 오는 8일 10시30분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송석구총장, 오녹원 이사장, 황명수총동창회장을 비롯 내외귀빈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연혁보고 △개교기념표창장 및 부상수여 △총장기념사 △이사장치사 △총동창회장축사 △해외자매대학총장축사 △사홍서원등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90주년기념행사 관람과 학술교류논의차 방문한 11개해외자매대학 총장의 참석으로 한층 자리가 빛날 것으로 보인다.

개교기념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급 공로상

〈서울 캠퍼스〉

△이창학(연구교류처 연구부) △김윤길(개교100주년기념사업본부) △강형석(기획조정실 기획과) △박래호(총무처 경리과)

〈경주 캠퍼스〉

△김근묵(학생처 학생과) △최해방(사무처 경리과) △최영택(병원 원무과) △신병직(포항병원 원무과)

◇2급 공로상

△임헌장(관리처 관재과) △이자미(정각원) △정향란(박물관) △임수진(동국한방병원 서무과)

◇20년 근속

〈서울 캠퍼스〉

△김인덕(불교학) △이종찬(국문학) △홍기삼(국문학) △허천택(영문학) △김항배(철학) △조희영(경영학) △박교수(산림자원학) △김창수(역사교육) △한명희(교육학) △조승환(미술학) △차준환(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 △하정윤(관리처 관재과) △차선구(사무처 경리과) △이창진(관리처 관재과) △김희철(총무처 총무과) △정용수(총무처 총무과) △선상규(학생처)

〈경주 캠퍼스〉

△장충식(고고미술사학) △설영기(국제경제학)

◇10년근속

〈서울캠퍼스〉

△이법산(선학) △김태준(국문학) △이형기(국문학) △양문흠(철학) △송재운(국민윤리학) △방현수(수학) △송희자(수학) △김일중(무역학) △차수련(경영학) △이종옥(정보관리학) △이진구(전자공학) △조형제(컴퓨터 공학) △하성철(전기공학) △곽준규(교육학) △유시규(수학교육) △조영석(체육교육) △임 식(체육교육) △채환국(체육교육) △오원배(미술학) △이영관(관리처 관재과) △김종애(정각원) △김현영(총무처 경리과) △하미애(총무처 비상계획과) △김미숙(공과대학 교학과) △박상관(연구교류처 연구부) △송종수(관리처 관재과) △김대욱(직원 노동조합) △강귀원(전자계산소 전산과) △오성근(전자계산소 전산과) △김시길(총무처 총무과) △김철조(총무처 총무과) △김승국(총무처 총무과) △김영철(총무처 총무과) △김종백(동국한방병원 서무과) △한경란(중앙도서실 열람과)

〈경주캠퍼스〉

△이봉춘(불교학) △이석장(영문학) △최종세(중문학) △노명희(일문학) △박청병(국사학) △손연철(미술학) △황상주(미술학) △이정일(생물학) △이갑득(화학) △강태호(조경학) △이태경(전자계산학) △함경수(전자계산학) △박동연(가정교육) △김선정(법학) △김희오(국제관계학) △이영기(경제학) △김영국(관광경영학) △서태양(관광경영학)△김갑성(한의학) △김태용(사무처 총무과) △권동소(사무처 관재과) △이철희(사무처 관재과) △김한곤(사무처 총무과) △양승우(사무처 총무과) △김창근(사무처 총무과) △구태회(의료원 총무과) △박경희(교무처 학적과) △서종옥(학생처 장학과) △정향란(박물관) △황영란(보건소)

특별학술연구비 지급

김정근·이황우·석원경 교수

96학년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선정됐다.

대상자는 △김정근(영어영문학)=콜리지의 문학과 사상(주논문) △이황우(경찰행정학)=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석원경(화학)=Perparation of Ruthenium-Containing Polycarbonate Films and the Chemistry of Ruthenium in Polycarbonate이다.

제13회째 실시하고 있는 특별학술연구비 지급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서 전공분야 학술발전에 기여한자를 선정하여 연구업적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교내 연구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20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추천은 인문과학분야 8명(서울 6명, 경주 2명), 사회과학분야(서울 4명, 경주 3명), 자연과학분야 9명(서울 7명, 경주 2명)등 총 24명이 추천의 회를 받거나 신청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자는 3차에 걸친 연구업적 및 주논문에 대한 내·외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한편, 시상 및 연구비 지급은 개교 9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8일 학술문화관 중강당에서 있으며, 특별학술연구 수상자에게는 각각 기념패와 연구비 3백만원이 지급된다.

야구부 백호기 출전

농구부도 전국 연맹전

본교 야구부(감독=황동훈)가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동대문구장에서 열리는 백호기 전국종합야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시되는 이번 경기에서, 부전승으로 1차전을 통과한 야구부는 경희대 대 상무전의 승자와 예선전을 갖는다.

조경진 체육부 계장은 "부상선수들이 완쾌되고 있으나 중간고사관계로 전체훈련을 갖지 못했다"며 "3, 4일 전체훈련을 실시해 팀웍을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농구부(감독=김성오)도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96 전국 대학농구연맹전'에 출전한다.

중앙, 건국, 명지대와 함께 B조에 속한 본교는 올해 스카우트한 송태영외 8명의 신입생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5일=명지-동국(오후 2시) △6일=중앙-동국(오후 5시) △8일=동국-건국(오후 6시30분)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신 동북아 질서 토론

북한의 변화와 신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96 통일문제 국제학술회'가 오는 11일 안보연구소 주최로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권오윤(북한학) 본교 강사의 사회로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는 각각 △북한체제의 개혁전망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과 신동북아질서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연구자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고유환(북한학), 유광진(정치외교학), 강성윤(북한학)등 본교 교수들이 각각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가한다.

한편 이 회의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참관 자격이 주어진다.

보 리 수

최고의 길

최고는 아름답다. 그것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도전해 볼 만한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은 작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만일 세계무대에 나아가 예술이든 과학이든 문학이든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 하자. 그 노력과 결과에 대해, 우리는 경의를 보내야하고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인들로서는 생각만으로 가슴 설레이는 꿈이 있다. 국내 아니 세계 최고의 대학, 일류의 교수와 학생, 저마다 바로 우리 대학이 그렇게 되기를 꿈으로 그려보기도 한다. 어디 대학만일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일류의 국가였으면 좋겠다. 만일 민주화가 인간을 위한 최고·최선의 길이라면 그 방면에서, 또 삶의 질을 가장 높게 보장할 수 있는 복지나 혹은 도덕성에 있어서 이 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되기를 모두가 희망한다.

최고에 대한 꿈은 나쁘지 않다. 향진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런 꿈에 고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무한경쟁의 논리 속에서 '내가 일류면 나라가 일류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식의 구호가 등장한지는 이미 오래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언처럼 들려 차라리 비장감마저 감돈다.

최고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이쯤해서 최고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구현의 방법론에 대해 한번쯤 사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이든 허상이든, 그동안 최고와 일류를 향한 줄달음은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낳아왔다. 그 과정 속에서의 졸속과 부실 그리고 결과로서 드러난 허위와 패배감 말고도, 최고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폐해는 광범하다. 인간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삶의 의미를 별질시키는가 하면, 다양한 사고와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앗아간 것도 그중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길이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방법론을 물어야 한다.

현실과 유리된 언어의 유희라고 비판될지 모르지만 단언컨데, 그 길은 중도(中道)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불타의 가르침대로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수학적인 중점이 아닌' 가장 바른 중정한 길인 것이다.

현실적 요구에 의해 최고를 지향하더라도 그것을 조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죽음의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또한 나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중도로 가는 길이 아니다. 다양한 인간 삶의 가치나 사고도 폭넓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인생을 관조하는 여유도 지녀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길, 그것이야말로 곧 최고의 길이 아닐까?

이 봉 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중앙사무 조직 개편

정기이사회서 감사 3인 선정도

제1백39회 이사회가 임원선임,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개정, 인사제청과 기채승인을 안건으로 지난달 29일 개최했다.

이번에 결의된 안건 중 임원선임건은 96년6월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임기 2년) 3인 후임선정에 대한 논의로 기존에 감사직을 맡고 있던 전연성, 김계호, 이기화 감사들 중 전연성, 이기화 감사는 재임하게 됐으며, 김계호 감사 후임으로는 김정휴 스님이 선임됐다.

정관 및 정관시행 규정 개정에서는 교무처에 입학과, 관리처에 시설과 신설, 이에따른 중앙사무조직 개편 등이 의결됐다.

이와관련해 법인사무처(처장=송재운·국민윤리학)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된 편입학이나 특례입학 등 입시모집유형의 다양화, 학술문화관 건립과 제3캠퍼스 조성으로 인해 실무기획·관리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앙사무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부속 경주 유치원 설립에 대한 결의도 있었다.

끝으로 일산 제3캠퍼스 부지매입자금 13억을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받은 기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왕오천축국전' 연구 발표

한·중 학술교류 증진 기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해독에 관한 연구발표회가 오는 7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종·불교학)과 대학원 불교학과의 공동 주최로 학술문화관(K213)에서 열린다.

발표자는 중국 항주대학 역사학과 황시감 교수로 통역은 강문호(사학)강사가 맡는다.

발표를 맡게된 황교수는 동서문학에 조예가 깊고 동서문화 교류부분에 일조한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발표회에서 소개를 맡은 조영록(사학)교수는 "한중이 국교관계를 맺은 지가 몇년이 지난 지금 이 연구발표회는 중국과의 학술문화교류에 큰 뒷받침이 될것"이라 말했다.

한편, 황시감 교수는 오는 9일 사범대 소강당에서 사학과, 역사교육과, 불교대학원 합동 초청 강연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직원 인사이동

학교당국은 지난달 직원인사이동에 이어 다시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이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주 캠퍼스〉

◇교무위원급 인사

△동국의료원장=조재호 △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장=정필현(이상 4월1일자)

◇직원인사

△한의학연구소장=박현국 △의학연구소장=김두희(이상 4월25일자) △교육매체실=정현수 △과학관=박원규, 신영배(이상 3월20일자) △신교육제도운영실무팀=박두관(3월20일자), 신익종, 박승필(이상 3월27일자)

동국요람 영문판 발행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문학)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동국요람을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요람'을 오늘(6일) 발행한다.

이에 학술교류부 한 관계자는 "이 책자는 주로 국내·외 홍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학과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노조 노동절 기념행사

맡은바 임무 최선 다짐

노동조합 창립 8주년 및 노동절 106주년 기념식이 지난 1일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김윤길 노조위원장과 송석구(철학)총장을 비롯한 직원 1백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졌다.

기념식은 사회자의 개회사로 시작해 △노동의례 △노조위원장 인사 △총장 축사 및 격려금 전달 △처·과장회장 격려사 △기타보고사항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로비에서 기념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윤길 직원노조위원장은 "대학이라는 특수공간에서 직원들이 맡은 임무와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며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을 뒷받침하는데도 일조할 것"을 당부했다.

교수동정

▲김경재(식물자원학)=지난 4월 29일부로 '한국과학화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

▲배상현(한문학), 김필수(철학)=오늘(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정주시 중원 송학연구회를 학술발표차 방문.

96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96년도 전역자
   ◇'90.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88.12.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간부
3. 교육시간: 8시간
4. 교육일정(대학별)

5.20(월)	5.21(화)	5.22(수)	5.23(목)
공과대	불교대 예술대 경상대 사범대 법과대	이과대 이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문과대 사과대 대학원 교직원

5. 교육장소: 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제1905부대)
   ◇구파발전철역에서 송추방향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관광버스 대기 (06:20-07:00까지 운행)
   ◇시내버스: 구파발 전철역에서 156번(북한산성 → 송추)
   ※156번중에 북한산성경유 송추행이 아닌 삼천리골행, 일영경유 송추행탑승금지
6. 복장: 예비군복(준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7. 휴대품: 신분증, 주민등록증지참(분실자: 학생증, 면허증, 예비군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8. 특별(유의)강조사항
   ①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위병소 엄격통제)
   ②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중 1가지라도 미 착용자 절대 입소불가
   ③학교에 잘 나오지 않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거나,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해 교육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으므로 예비군 신분의 재학생은 예비군 연대본부에 수시로 문의바랍니다.
   ④해당 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경우는 사전에 예비군 본부로 신고바랍니다.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260-3072~3

1996.5

동국대학교예비군연대장

공 고

제 목: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6년도 8월 졸업예정자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다 음

1. 대상: '96.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1)공통: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자.
   2)사범계: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상응과목 이수자.
   3)비사범계
   ①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②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상응과목 이수자로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3. 접수기간: '96.5.7(화)-5.10(금)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6. 교직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졸업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시험검정 자격이 소멸하니 대상자는 유의 바람.

사 범 대 학 장

수 계 신 청 안 내

부처님의 밝은 慧命(혜명)을 잇고 동국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 가족을 수계식(법회)에 초대합니다.

계를 받는 것은 첫째 佛子가 되는 것이며, 둘째 불보살님전에 萬德의 근원을 심는 것이며, 셋째 불법의 인연으로 無明의 업장을 소멸하고 밝은 지혜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무량복덕의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계를 받아야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이며 '계는 한번 받기만하면 그 受戒된 선근공덕이 영원히 영속한다'고 하였듯이 계를 받음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선근공덕과 지혜의 등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계신청서를 정각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일시: 1996년 5월14일(火) 오후4시
△수계장소: 정각원 대법당
△수 계 사: 오녹원 큰스님(동국학원 이사장)
△접 수 처: 정각원 사무실
☎ 260-3016, FAX: 268-2314

정 각 원 장

1996년도 교육학 특강

1. 내용: 임용고시 교육학 이론
2. 강사: 곽내영(노량진 한교 고시학원 전임강사)
3. 일시: 5월16일~8월17일, 늦은 6시(매주 목·금 4시간씩 총 96시간)
4. 수강료(교재비 포함): 사대생(130,000원) 비사대생(150,000원)
5. 접수기간: 5월6일~15일(강의 도중 접수 불가)
6. 접수처: 동국대 학림관 지하 사범대 학생회실(전화: 260-3661)

민족자주교육실현

제28대 사범대학생회

불신·갈등 해소후 노동인권보호에 바탕 두어야

연 기 영
법과대 법학과 교수

시사논단

노동법 개정의 방향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속에서 밝힌 노동관계법 개정이 어떤 배를 탈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가동되면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원로적인 측면에서는 각계·각층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도 그간 문민정부의 탈을 쓰고 각종 개축정책을 펼쳐온 현정권의 노동정책은 구시대의 틀속에 갖혀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독재시대의 경직된 낡은 법과 제도를 타파하지 못하고 노사간의 갈등·대립을 증폭시켜 왔던 것이다.

김대통령의 대선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노동악법의 개정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서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구상'의 실천가능성에 대하여는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첫째는 단순히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이사국진출을 위한 "카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 해마다, 장관이 바뀔때 마다 노동관계법의 '연내개정'방침이 안나온 적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는 현정권의 각종 개혁정책이 발표만 되고 실현단계에서 미진한 면이 많다는 점이다. 이른바 '깜짝쇼'라는 비난이 많다. 예를들면 사법개혁은 목소리만 높혔지, 실천된 것은 거의 없다. 교육개혁도 각론에 들어가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을 담은 내용이 많다. 경제개혁·정치개혁은 어떤가?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깜짝쇼"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노사화합과 안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사개혁의 핵심인 노동법개정에 있어서는 좀더 정부의 진지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제노동법규와 관행을 무시한 현정권의 각성이 앞서야 한다.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절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난 91년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그후 노동계와 노동법학계는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수차례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1992년4월 '노동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나 지금까지 잠자는 위원회가 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노동악법의 개정과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구속 및 수배의 해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하였다. 지난해에는 유엔의 인권이사회가 우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 유엔인권규약A급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우리나라는 1990년 가입)에 위배된다고 알리고 이에대한 결과를 9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동기준에 미달된다는 오명을 쓰고,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이다.

한편 지난 93년3월11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95년 말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와 입법부는 아직도 무책임하게 이부분에 대한 법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보면 현정권이 얼마나 신뢰성을 잃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국제노동법규와 관행뿐만 아니라 헌법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이번 청와대구상에서 밝힌 노동법개정의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우선 그동안 악법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온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등의 규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과 시대정신에 알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적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제폐지,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등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 이런 개악적 내용들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등과 함께 사용자쪽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둘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분명한 것은 노동법은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표현이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법이다. 사용자에게는 각종 경제관계법령에 의해 지원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법의 개정방향은 노동보호와 노동인권보호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노조설립신고폐지를 비롯하여 공무원·교원의 단결권보장, 노조의 내부조직,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등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가입을 촉진하고 있는 국제경제협력개방기구의 25개회원국 가운데에서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진정으로 노사개혁을 통한 화합과 안정을 바란다면 올바른개혁 방향을 세우고, 노동자들이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개정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제도의 개선에 앞서 지난날의 노동 법으로 구속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사면, 복직이 선행되어,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설

새 역사를 열어나가자

우리 동국이 민족자존을 위한 대선각의 의지로 문을 열어 이땅에 동량재를 육성 배출해내기 바야흐로 한 세기를 바라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자축하는 장엄한 기치들이 아름답게 넘치는 교정을 거니는 동국건아들의 늠름한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럽기만 한다. 이즈음 한국의 대학은 새롭게 학문과 인재 양성의 방향타를 돌리기 위해 과감한 개혁의 고동을 경쟁적으로 울리고 있다. 우리 동국도 근년의 침체와 부진을 떨치고 새 기운을 회복하여 중흥의 도약을 위한 여러 전망들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타성과 나태의 덫을 걷어치우고 불신과 무기력의 그늘을 걷어내며 용맹정진의 우뚝한 혁신상을 과감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부제 실시와 아울러 제반 제도의 개혁이 여타의 앞장을 섰으며,개선된 틀에 걸맞는 학문적 내용과 참신한 교수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있다. 이제 더이상 불신과 좌고우면의 지지부진을 거듭할 수는 없다. 전동국인은 동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필경 민족사학의 전통과 역사를 새롭게 구현하겠다는 소명을 실천하는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해야겠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무사안일은 자기 개인의 부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국의 미래건설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자각하자. 동국의 구성원이 빈틈없는 일체감으로 개혁과 전망구축에 나선다면 동국의 성가는 일시에 괄목의 표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온누리를 큰 광명으로 밝히리라는 건학의 취지는 찬연하게 구현되리라 믿는다.

먼저 전동국인이 한결같이 동국사랑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다. 우리 스스로 동국이 존귀함을 마음으로 새기며 각자가 주인됨을 명심하여 미래를 향해 내닫는 행진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동국의 현재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인 신뢰와 동참에 앞다투어 나서야 하겠다. 학교당국이 어떤 시책을 베풀어 줄 것인가,또 시책이 나의 일신에 어떤 이해득실이 있을 것인가를 따지는 소승적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동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도를 고민해주기 바란다.

또 전동국인은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이타행의 정신을 드높이자.박진감있게 추진되는 여러 학교발전안에 긍정적 관심을 갖고 보다 더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합심협력으로 추진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동국개혁의 대역사는 시작되었다. 힘차게 내달리는 전환의 고동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고 오로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부치고 대동단결을 도모하자.

2002 World Cup Korea 한국유치 가능성

내달 1일 투표·유럽소속 집행위원 표가 최대관건

한·일 공동개최안, 한국은 여운·일본은 단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한국유치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다음달 1일 투표함을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일 것이다.

월드컵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국제축구연맹(FIFA)집행위원은 유럽연맹 소속이 8명으로 최대 다수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중미 등 4개 대륙 소속이 3명씩이다. 여기에 아벨란제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보태져 21명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최근 대륙별 개략적인 표분석은 △남미는 일본 강세 △북중미는 한국 강보합세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나머지 대륙 특히 최대 표밭인 유럽쪽에 대한 분석은 한·일 양쪽 모두 조심스러운 형편이다.

누가 이기든 1~2표의 근소한 차이가 아니겠느냐는 정도가 대부분 부정하지 않는 합일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는 일본의 선점→한국의 잠식→일본의 반격으로 이어지는 한·일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한국이 월드컵유치위원회를 띄운 것은 지난 94년 3월. 일본보다 2년여 늦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9월 일본과 함께 유치신청서를 국제축구연맹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차근차근 유치활동을 펼쳐나갔다.

일본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버추얼스타디움(VIRTUAL STADIUM)이라는 첨단기술로 유치홍보에 나선 반면, 한국은 국제축구발전기금으로 6백억원으로 예상되는 대회운영 수익금 전액을 내놓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국은 월드컵유치로 △관광수입 5천억원 △국제 신용도 상승에 따른 수출증대 6조원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기대치 2조4천억원 △생산유발효과 5조원 등 14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먹히면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었다. 국제적으로도 꾸준히 로비와 홍보로 일본의 선점효과를 잠식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유치전이 전개됐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떠들어대며 한·일 공동 개최론의 불가피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1월 북한이 남북공동개최 인사를 간접적으로 밝혔고, 한국은 놓치지 않고 남북공동개최를 한반도 평화와 연계시켜 홍보에 적극활용했다.

그러나 일본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서며 유치전은 곧바로 점점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을 띠게 됐다. 유치전의 분위기는 전례없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 정상적 한계를 넘어선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쪽에서는 '일본이 경제력을 앞세워 표를 돈으로 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일본쪽에서는 '한국이 집행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뒷거래하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상황을 더욱 혼미스럽게 한 것은 지난 3월 다시 불거져나온 한·일 공동개최안이다. 애초부터 공동개최를 지지했던 술탄 아마드샤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 '아시아의 단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제안했고, 이것을 유럽쪽에서 되받아 8명 집행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아벨란제 회장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최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한·일 두나라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공동개최안에 대한 한·일간의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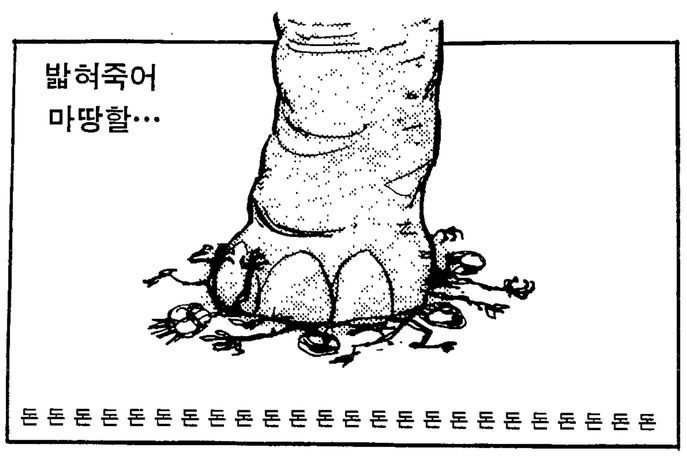
한국이 "집행이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여운을 남기는 반면, 일본쪽은 "이 시점에서 공동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비교적 단호하다.

지난달 '한국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방한중인 일본 정계 유력인사에게 공동개최 가능성을 타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일본보도는 시사적이다.

박 병 수
(한겨레신문 기자)

풍국만평

감 성 수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공고

1. 대학명:미국 미시간 주립대학(MSU), 일본 대정대학, 중국 남경대학
2. 파견기간:'96.2학기-'97.1학기(1년간)
3. 선발인원:MSU-5명, 대정대학-5명, 남경대학-2명
4. 자격조건
   가. 본교 4학기 이상 수료자(4학년 학생 제외)
   나.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다. 파견대학 개설학과 재학생인 자
   라. 단, MSU는 TOEFL 520점 이상인 자
5. 파견조건
   가. 미시간 주립대
      1)수업료:학점당 $203.50(12학점 기준:$2,442)
      2)기숙사비:$2,000(1학기)
      3)기타경비:교재비 및 기타경비
   나. 대정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및 월 8만엔 생활비 지급 (기숙사비 포함)
   다. 남경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의 10% 면제
   라. 본교
      1)파견기간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
      2)본교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 장학금 지급
      3)파견대학에서 취득 성적 인정(취득과목, 성적, 학점을 본교 교과과정에 대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단, 파견기간중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
6. 선발일시:남경-5.15(수), 대정-5.16(목) MSU-5.17(금)
7. 선발방법:공개시험 전형
8. 전형방법:①대정, 남경대학:필기성적(30%)+회화성적(30%)+학교성적(30%)+면접(10%)
   ②MSU:필기성적(30%)+회화성적(20%)+TOEFL(20%)+학교성적(20%)+면접(10%)
9. 접수기간:'96.5.6-5.13
10. 접수처:학술교류부
11. 신청서류
    가. 신청서 양식(학술교류부)
    나. 재학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 3024-5)로 문의바람.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참가자 선발

본교 해외 자매대학 자비 어학연수 참가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함.

다 음

1. 국 가 명:미국
2. 대 학 명:메인주립대, 하와이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MSU)
3. 선발인원:대학당 각 20명
4. 지원자격:본교 학부(대학원)재학생
5. 특 전: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3학점)
6. 연수내용
   가. 메인주립대
      1)기간:'96.7.15~8.23(6주간)
      2)경비:약 $3,800(수업료, 숙식비, 왕복항공료, 교재비등)
   나. 하와이 주립대
      1)기간:'96.7.9~8.23(7주간)
      2)경비:약 $3,600(수업료, 숙식비, 왕복항공료, 교재비등)
   다. 미시간 주립대(MSU)
      1)기간:①7.1-8.17(7주간) ②7.22-8.17(4주간)
      2)경비:①7주:$4,600(수업료, 숙식비, 왕공항공료, 교재비 등)
      ②4주:$3,200(〃)
      -기타 비자수속경기등 제반경비 자비부담.
7. 신청기간:'96.5.6(월)-13(월)
8. 신청장소:학술교류부
9. 신청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나. 재학증명서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 3024-5)로 문의하기 바람.

1996. 5. 6
연 구 교 류 처 장

졸업앨범 촬영

제8대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앨범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 음

일시:5월6일~17일
장소:단체 및 소그룹, 야외프로필…불상앞
학사모, 개인정장…여학생 휴게실(계산관 2층)
※앨범에는 단체, 소그룹, 야외프로필만 수록됩니다.
학사모 및 개인정장 사진은 희망하는 학우에 한해서만 촬영합니다.
가격:학사모(액자포함)…₩15,000
개인정장…₩6,000~7,000(10매)
※각 학과 과대표는 졸업준비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가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졸업준비위원회(260-3613)
제작편집부장(015-921-9078)에게 연락주십시오.

어학연수설명회

제8대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학연수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일 시:1996년 5월9일 목요일 1시
장 소:동국관 L401
강연주제:성공적인 어학연수 어떻게 할 것인가?
강 사:최혁(한국해외교육협회 총무)
※5월9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도서관앞에서 일일상담회도 개최합니다.
※상담일에는 여권 무료발급 대행도 같이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학우는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여권 사진 3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국외여행신고확인서 1통(동사무소)…남학생
여권인지대 45,200원(복수여권 5년)
15,200원(단수여권일 경우)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분은 졸업준비위원회(260-3613)
취업국장(015-227-8754)에게 연락주십시오.

〈각 학과별 촬영일정〉

일자	오전	학과	오후	학과
5월6일 (월)	문과대학	10:30 국문과	문과대학	1:30 일문과
				2:00 사학과
		11:00 영문과		2:30 철학과
				3:00 국민윤리
5월7일 (화)	이과대학	10:00 수학과	사과대학	1:30 정외과
		10:30 물리학과		2:00 행정학과
		11:00 화학과		2:30 경찰행정
		11:30 통계학과		3:00 사회학과
5월8일 (수)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일	
5월9일 (목)	법과대학	11:00 법학과	경상대학	1:30 경제학과
				2:00 회계학과
				2:30 경영학과
				3:00 무역학과
		11:30 정보관리		
5월10일 (금)	예술대학	10:00 미술학과	사범대학	1:30 교육학과
		10:30 연극영화과		2:00 국어교육
		11:00 가정교육		2:30 역사교육
				3:00 지리교육
		11:30 체육교육		3:30 수학교육
5월13일 (월)	공과대학	10:00 식품공학	공과대학	1:30 산업공학
		11:00 화학공학		2:30 전자공학
				3:00 전기공학
5월14일 (화)	공과대학	10:00 토목공학	공과대학	1:30 컴공과
		11:00 건축공학		3:00 기공과
5월15일 (수)	이부대학	10:00 이부영문학과	이부대학	1:30 이부경영
				2:00 이부무역
		11:00이부 경제학과		2:30 이부회계
				3:00 이부정보관리
5월16일 (목)	생자대	10:00 식물자원	불교대학	1:30 불교학과
		10:30 응용생물		2:00 인도철학과
		11:00 산림자원		2:30 선학과
		11:30 생명자원경제	문과대학	3:00 독문과

동국대학교 제8대 졸업준비위원회

개교 90 주년

이사장·총장 치사·기념사

세계의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 동국 사랑을 모태로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아 먼저 우리 동국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구한말 불교계 선각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신 혜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교이래 한국현대사의 온갖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애교의 일념으로 동국의 오늘을 있게한 종단과 역대이사장, 역대 총장, 교직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어린 봉사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고해보면 우리 동국이 개교하던 1900년대 초에는 일제를 위시하여 세계의 열강들이 개항을 빌미로 우리 한반도에 침투하기 시작한 서세동점기로서, 국운은 쇠퇴하고 한국불교 또한 큰 시련에 직면한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올바로 구하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자각과 신념으로 불교계의 대덕들이 삼보의 정재를 모아 명진학교를 세운것이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태로서 이는 당시 불교계는 물론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과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교육불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교한 우리 동국이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항일운동 등으로 세번이나 폐교를 당하는 수난을 겪었으며 나라의 운명과 같이 6.25, 4.19, 5.16, 10.26 혹은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명암속에서 우리 동국은 많은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며 오늘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이는 실로 동국인 모두의 의지와 애교심의 승리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9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목첩에 두고 교육개혁과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계획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세계의 대학, 민족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무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해답을 무엇보다 불교정신의 올바른 구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대학이 가장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국대학교야말로 16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주도해 온 가장 전통적 종교인 불교를 토대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해 온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며 곧 세계적인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국은 개교 일백주년을 앞두고 본교발전에 지대한 원력과 진취적 기상을 지니신 송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과 창의적 발전계획이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음은 우리 동국의 중흥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캠퍼스와 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등의 건립사업이야말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남북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적 사업이라고 확신하며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 구성원의 진지한 노력 못지 않게 인화와 결속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교 100주년을 앞둔 우리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 재단, 대학은 물론 동문, 재학생 모두가 동국발전의 주체요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부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정성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헌신적으로 동참할 때 소기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단으로서도 동국발전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가능한 지원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동국발전을 위한 한길을 걸으시어 30년, 20년, 10년의 장기근속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과 특별학술연구 및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치하를 보내면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장 오녹원 합장

통일 한국을 이루는 초석 되고자 전통과 현재·본질과 현상의 조화로

존경하는 동국학원 오록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님들,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종단의 대덕큰스님들, 황명수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 그리고 역대 총장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개교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06년 이땅에 처음 동국의 기상을 펼치기 시작한 이래 어언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담했던 일제의 억압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가꾸려는 불교선각자들의 값진 노력은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90주년을 새로운 동국웅비의 전기로 삼아야 할 때 입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언을 고하고,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는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은 건전한 인간심성의 황폐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의 뒤안길에 가려진 도덕성상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면, 미래의 국제경쟁은 문화적 대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가 자신의 건전한 문화를 국력의 바탕으로 삼느냐에 따라 국가간의 우열이 나누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문화의 저변에는 불교문화가 잠재해 있습니다. 불교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지배하여 온 가장 위대한 가치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 영광의 그림자에만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의 빛을 새로운 가치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 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한국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과제와 함께 민족동질성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통일한국을 이루는 초석 되려고 합니다. 서라벌의 기상을 등에 업고, 드넓은 만주벌판을 달리는 기상으로서 우리의 가진 바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동국대학교는 학부제실시, 제3캠퍼스 건립계획, 불교병원 설립계획 등을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학타운의 건설로 교육혁신의 한 계기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로 웅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합된 의지입니다.

나약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 있는 행적을 통해 우리의 꿈을 펼쳐가야 합니다. 신라때 충담스님은 안민가라는 노래를 통해서 "백성은 백성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할지면 나라는 태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국을 구성하는 여러주체들이 각자의 위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밝은 미래는 보장되는 법입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한 이래 동국발전이라는 한가지 목표에 매달려 왔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려면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교육개방화시대에서는 특성화된 대학이 아니면,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학을 비롯한 동양학의 본산으로서 긍지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공학등 첨단과학분야에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줄기의 흐름을 보다 내실있게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전통과 현재의 조화, 본질과 현상이 어우러짐을 통해 동국웅비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낙오자가 되느냐, 아니면 미래를 응시하는 개척자가 되느냐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전적 안목으로 내일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동국21세기에 우리의 노력들이 자랑스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동국과 인연을 맺었던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크신 자비원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장 송석구 합장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나기 제3캠퍼스

▶당장 시급한 도서관부터 지어라! 본관이랑- 수영장 부지에.
▶이건 무효야.
▶인문계는 제4캠퍼스로, 아니 그럼 제1캠퍼스는 무엇만 남지?
▶말도 안된다. 흥!
▶적극 환영한다.
▶경주 캠퍼스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빵 숫자만 늘릴것이 아니라 지금의 빵이 맛 있는지, 없는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
▶역시 한국인은 삼세번이야
▶서울대 농대도 관악으로 오는데 동국대 농대 일산이 왠 말이냐?
96학번 뭉치면 무섭다
▶학우들이 반대하면 뭐합니까? 벌써 세우고 있는건 아닌지요.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국의 앞날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싫다. 대안없는 행정은 더 싫다.
▶제3캠퍼스가 갖는 3가지 허구성
▶어이구 우리 엄니 등골 휘네.
▶우리 엄마는 동국대가 서울에 있는지 알고 보냈다!
▶근데,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 과시용인가요?
▶조금더 만들어 제10캠퍼스도 지어 봅시다.
▶일산이 멀다하되 대한민국 땅이로다 지하철 타고 버스타면 못가는일 없것만은
그래도 나는야 서울캠퍼스가 좋아라.
▶일산!! 다 좋다구요. 근데 왜 가만 있는 경주캠을 흥분하게 하냐구요.

1. 70년대 서울캠의 발전을 저해했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경주캠 건설이었다.
2. 학생들과 협의없이 터뜨린 당국의 짝사랑이기 때문.
3. 제3캠퍼스 재정확보방안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될게 뻔하기 때문.

90주년 행사, 내적충실을 기하길

베스트셀러에 이르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길은 대중화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계속적인 홍보로 독자들에게 그 책의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길은 책의 수준과 내용에 상관없이 책을 다만 베스트셀러로서 만드는 길이다. 또 하나의 길은 독자들의 입을 통하여 베스트셀러에 이르는 길이다. 이길은 책의 내용과 수준, 평판과 비판에 따르는 모든 칭찬과 험담을 견디어내고 스스로 베스트셀러에 이르는 길이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5월들어 개교 90주년 행사준비로 동국안팎이 모두 시끄럽다. 교직원들은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고 학생들은 행사준비에 그나마 방해가 안되려고 정신이 없다.

각종 음악회와 전시회를 통해서 동국의 이미지를 넓게 넓게 알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장으로서 학술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불상사나운 것들은 한곳으로 밀어 넣고, 산뜻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동국이다.

그렇지만 지금 동국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

재단전입금 문제, 등록금의 과다한 인상과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오류의 연속, 자치공간 확보를 위한 단과대, 학과별의 지속적인 투쟁문제등 동국의 내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노력보다는 '동국걸모습알리기'에 더욱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당국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홍보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홍보가 경쟁력의 최우선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의 바탕은 내적 충실임을 알아야 한다. 내적 충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쟁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동국은 동국내의 여러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이상 둔감해서는 안된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경쟁적인 환경속에서 민족 사학의 명문으로서의 동국이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할지를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유 승 균
(경상대 무역학과)

동/악/광/장

목멱골

◇ 축하합니다

■현두야! 생일 축하한다. 임마!
- 현두의 잘나가는 친구현두(?)

■그리고…그림의 영하형, 유나, 재범, 미란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그리고…그림人

■연선 선배, 이사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새 안식처로 옮기신거 축하드려요. 집들이(?)는 꼭 갈께요. 연선 호텔(연선장에서 연선호텔로)개업 축!
- 96학번 영문과 신순옥 드림

■May-Day(5.1)에 태어난 명호오빠와 맑스 탄신일(5.5)에 생일을 맞은 오우 오빠, 생일 축하혀부러요.
- 국문과 사회과학학회 어여쁜 짱이

■배명호, 박오후선배 왜 태어났노? 탄신 축하 - 국문96 김대성

■동백련 生日 축하한다. 호준, 재경, 석균, 태길, Club에서 8日 생일 축하연이 열립니다. 남은기간 열심히 공부해 졸업하자!

■독문과의 선비, 명렬의 오빠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알립니다

■전자 노땅들 수학(졸업, 학술조사)여행간다. 5/2~5日
- 왕창 노땅 80'S학번

■Vocal백상에서 Key-Board치실 분을 찾습니다. '96학번 새내기 만해광장 지하 연습실로 오십시요.
- 백상

■황보!빨리 연락해!
- 카프리 사준사람

■정보관리과 주간 3학년 5월 중순에 수학여행 갑니다. 정보과 여러분, 마니마니 동참해주셔요!!(기쁨조 항상대기중)

■4월26일 동국관M207재무관리 시험 시간에 재무관리교재를 습득하신분은 연락주십시요.
- 경영3김영섭 015-354-5266

■드디어 성사! 전주해성VS재전주여자고등학교 연합동문회 금요일, 5시 만해광장

◇ 열심히 합시다

■19th선배님들 "제15회 응대전"을 위해 힘내세요. 저희도 열심히 일할께요.
- 백상응원단 20th일동

◇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 우산을 가져가신분! 그대의 치시함에 질렸습니다.
- 우산이나 잃어버리는 칠칠치못한 者

■영동고 선후배님들 동문회에 보내준 뜨거운 사랑! 감사합니다.
- 19기Oh

■식물자원학과 '94김영진군이 5月에 군대갑답니다. 우리모두 박수를.
- K

■권영아, 정금아, 연습 좀 나오니라.
- 뭉게구름 6기 동기들

■5월의 바람으로 일어서는 민·미·연 태희와 태형이의 힘찬 안식의 도약을 기원하며…
- 선배 일동

■야총 경영 '93김정환형이 제대해서 야총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기뻐해주세요. P·S난 살았다?
- 문화

■무역학과 94학번 최병문이 두번의 반품끝에 드디어 6월5일 군대갑니다.(아직 멀었네!)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예비노동자

■토토 축구대회 우승을 기원하며
- 正

■사회학과 조교 현진욱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 사회94일동 현진욱go, 진욱go

■바람소리 7기 상진이의 명복을 바람소리 온가족 머리숙여 빕니다.
- 바람소리 일동

온방골

◇ 축하합니다

■5월15일 스승의 날 악연으로 만난 경영3 준석선배의 birthday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 그녀(악연으로 만난 그녀)

■동수야, Youth-hostel 5기 기장된거 축하한다.
- Love 효은·현애

■일문4 진인(4일), 미경(7일)생일 축하해.
- 이쁜이 동철

■정규선배 생일 축하드려요. 샘도 열심히 하시고 과생활도 열심히!!
- 겁장이

■설라이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중문과 느낌

■동묵회 18기 기장된 수진이, 부기장진수 축하한다. 영진이두 화이팅!! 열심히 하자.
- 동묵의 이쁜 선배가

■못생긴 인숙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부디 男子친구를 선물로
- chols and Lee

■성준! 생일 축하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 X세대

■내사랑 양숙이의 19번째 생일 축하한다.
- 오빠

■늦었지만 선희·형주·성호·준호·주광선배 생일 축하해요.
- 새내기들

■수습들이 첫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 수습일동

◇ 알립니다

■대구 덕원&혜화동문 인이여 5월중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까지 무사하길…
- H·J

■가정교육 3학년 이쁜이·못난이들이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 떠나는 이

■유은이와 광옥이의 방뜰이 5월 8일날 합니다. 놀러오세요.
- D동 102호

■현대 연합동문회 5월9일날 A320 오후 5시에 합니다.
- 회장

◇ 열심히 합시다

■희정, 효정, 도희야 잘 살자. fighting.
- 지혜

■해방을 향한 힘찬 몸짓으로 진군하자. 그대 중앙 몸짓패 '해방몸짓'이여!

■중문과 야구부의 2번의 콜드패. 하지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영숙, 선영, 소연 3자매가 있으니까.
- 삼자매

■수학교육4 교생실습 잘 다녀오고 고·아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기 바란다.
- 소·아 대빵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보기 좋으니 더 분발하자.
- 큐타

■뮤트 화이팅! 2기들 잘 합시다.
- 사랑스런 귀염둥이가

◇ 그리고…

■가교야 내 물건너 갔다 오꾸마. 흑흑흑, 귀양살이가는 이 맴이 아프구나.
- 내가 누구더라?

■정수야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길.
- 한문과·훈

■애숙아! 난 너의 건강한 모습, 건강한 웃음, 귀여운 모습을 되찾길 바래.
- 은영, 진우

■동숙아, 편안히 쉬었다가 와 대신 더 멋진 너의 모습을 기대할께.
- 은영

■준영아! Birthday Party못해서 어쩌니?
- 숙이와 윤

■4월29일 경·송 동문회에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 연합동문 양회장

◇1백6주년 노동절 맞이 민노총기념대회

학생·시민·정계인사도 함께한 축제 한마당

노사관계법개정·구속노동자사면·임금투쟁승리 결의

구름 낀 날씨로 흐려있는 보라매 공원 '주 40시간 노동 쟁취하자' '위장휴업 즉시 철회하라'등이 적힌 플랭카드가 이곳이 노동절 기념 행사장임을 먼저 알린다.

제1백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권영길 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서울 보라매 공원과 각 권역별로 기념대회를 열었다.

작년 11월에 민주노총이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인데다가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관계 개혁방안 보고대회'를 계기로 노동법 개정방향이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시점에서 치뤄져 그 어느해보다 큰 의미를 지닌 이번 대회에는 △96임단투 승리 △노동법 개정 및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 △사회개혁 쟁취가 투쟁과제로 내걸렸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그 가족들, 학생, 시민등 3만여명이 참여한 이날 보라매 공원에는 잔디밭에 둘러 앉아 가족과 함께 김밥을 먹는 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띠어 휴일날 봄나들이를 온듯한 풍경을 자아냈다. 특히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머리띠를 둘러 묶은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풍경을 지켜보던 한 참가자는 "노동절은 '투쟁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공휴일로 지정해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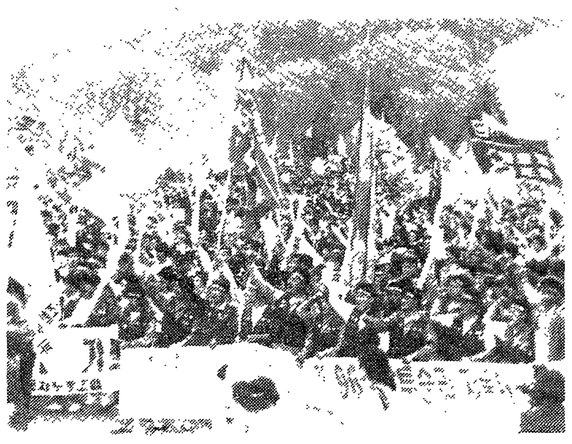
약간은 흐린 날씨로 차분해 있던 보라매 공원은 대회가 시작되면서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참한 막대풍선등의 소품들과 기념모자, 티셔츠차림으로 활기찬 표정, 대회장 위로는 비행선까지 떠 기념식의 열기는 고조됐다.

'전세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경험한 것은 임금체불, 폭언, 폭행, 의료문제 비혜택등의 처절함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입장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는 일하고 싶다'로 시작하는 산재노동자들의 피해사례들을 전시해 놓은 거리 선전물은 노동운동의 갈길이 아직 멀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권영길 위원장이 신노사관계추진,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노사관계 위원회' 민주노총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대회사를 낭독한 후 국민회의 부총재와 민주당 총재등 정계인사의 축사가 뒤이었다.

북소리와 함께 1백50명으로 구성된 문선대의 상징의식이 시작되면서 대회장 세군데에 설치된 '쑥불화로'를 점화한 가운데 민주노총을 상징하는 마크 세개가 등장, 전진과 안정된 조직을 의미하는 삼각뿔을 이루며 의식을 하는 동안 민주노총 깃발을 세우는 것으로 기념식은 절정에 다다랐다. 자욱한 쑥 연기로 덮혀 있던 대회장은 연속해서 '민주노총 강화하자'를 외치는 3만 군중의 함성으로 다시 한번 뒤덮혔다. 이런 기운 속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전교조 위원장인 전희숙씨가 '참여와 투쟁'이라는 슬로건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해고·구속노동자 복직 및 사면복권 △실질적 경영참가 보장을 정부와 경총에 촉구하는 한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적극 참가 △노동법 개정,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역량 강화 △임투, 사회개혁투쟁 승리 및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토대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참가자들은 여의도까지 가두행진으로 선전전을 벌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간단한 정리집회를 갖고 저녁 7시30분쯤 자진해산했다. (양지연 기자)



◇ 3만여명이 참여한 1백6주년 노동절기념대회에서 민노총은 '참여와투쟁'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좌는 기념대회, 우는 가두행진의 모습.

동악로

사랑주

"야 마셔, 우리의 학우를 돕기 위해선 많이 마셔야 해"

지난 3일 있었던 자연대 학생회의 일일주점에서 한 학우가 잔을 높이 들었다.

지금 학생회관은 '급성임파선 백혈병'으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야간강좌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각 단대에선 각종 이벤트 사업과 곧 있을 대동제의 수익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연대가 선두주자로 나섰다.

2천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일일주점에 들어서니 자리는 가득 메워져 있었고, 왁자지껄한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선배를 따라온 한 새내기는 "김윤호 형도 돕고 동아리 단합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하며 싱글벙글이다.

사람들 속 '사랑의 메세지'라는 하트 모양의 벽보에는 '윤호선배님 힘내세요'등의 정성어린 글귀가 빽빽히 적혀 있었다.

친구의 협박(?)에 티켓을 사고 말았다는 한 학우는 "이런 술집분위기와 김윤호학우 돕기라는 말이 어울릴까"라며 어리둥절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여기서 마시니 술맛도 좋네요"라며 웃기도 한다.

요즘 중간고사로 성건동은 매우 조용하고 도서관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하지만 "오늘 시험인데도 시험까지 빠지고 이곳에서 고생하는 집부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연대 식구들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학우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이다.

한편, 오는 9일 '사랑의 Open주점'이라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야·총. '꺼져가는 한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라는 선전자보가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누군가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늦은밤 도서관에서 "내일은 전공시험이야"라고 푸념을 하는 학생들. 사랑의 일일주점에서 "소중한 생명을 위해"라며 술잔을 기울이는 학생들. 동국을타리의 정이란 무엇일까? 어느새 밤하늘엔 별이 저물고 있었다.

(신용우 기자)

농촌실태와 농활의 의미

늘어만가는 부채로 주름진 얼굴엔 수심가득

전문농활·학점제 시도하나 농촌현실파악엔 역부족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인수(제천군 원박리·32)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작년 중부지방을 강타한 풍수해가 제천까지 미치는건 아닌지,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채는 어떻게 갚을까…

그러나 도시로 떠나간 동료들을 떠올리며 한숨만 쉬는 그에게도 조그만 희망이 있단다.

"농활이요? 큰 힘이 됩니다. 일손은 딸리고 해야될 일은 많고… 어색한 손놀림으로 일하면서 땀에 젖은 학생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충북제천지역에서 실시한 봄농활에서 본교 2백80여명 학생들은 노동의 참의미와 농촌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득했다. 고추심기, 농토정리, 모판나르기 등 손에 익지 않은 일에 학생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러나 농민계몽운동에서 손수봉사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활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학교당 농활참여수가 대부분 1백여명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속에 몇몇 대학은 봉사활동 육성안을 발표했으며, 작년엔 한양대가 올해엔 원광대가 봉사학점제를 도입, 각각 1천여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농촌을 포함한 사회각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서울대와 본교의 경우 작년 9월 수해농민을 돕기위해 현지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시도했다. 신선한 기획역시 학생들사이에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전문농활이 그 예이다.

본교의 경우, 법활 의활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활의경우 법적 소송사건과 땅문제 등의 민원을 받아 농민들사이에서 신뢰감있는 농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컴퓨터 전문농활,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풍물교실, 백일장 역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농활의 다채로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농민들은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다. 제천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본교 동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활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담담히 피력했다.

"글쎄요… 학점제실시후에야 대다수학생들일 몰린다는 것은 씁쓸한 여운을 남겨 주네요. 단기간 농활로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학생들이 어느정도 느낄 수 있을지 걱정 되기도 하고… 농촌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저 농촌을 공기맑고 인심좋은 곳으로만 느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실 WTO체제 출범으로 농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고 농업축소를 골자로 한 '신농정'에 따른 폐해가 가시화되면서 폐농한 농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귤, 양파, 마늘, 사설과채류등 주요작목의 가격폭락이 믿었던 돼지, 닭등 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이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겹쳐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민들의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기반인 쌀값, 입답배 값의 동결과 수매량 축소로 인한 자본의 농지 침탈이다. 정부의 복지제도역시 지지부진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의 경우 도시중산층의 두배를 낼 정도로 불공평한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학생측과 정부는 소외된 이와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기지촌, 탄광촌, 빈민촌 등의 또다른 봉사활동이 학생들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있으며 정부역시 1월 24일 '중소기업봉사활동안'을 발표, 중소제조업체의 봉사활동을 적극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농촌에 대한 애정은 줄어들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농활을 마치고 학생들을 전송하러 나온 농민들이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마디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한누리 기자)

노동절 의의와 유래

인간·노동해방 목표 시카고 노조서 시작

"나는 지금은 비록 임금을 받아 먹고 사는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노예같은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이 노예의 주인이 되어 남을 부리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중에 하나다" 이것은 세계 노동운동사에 큰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사건'의 노동운동 지도자인 파슨즈의 법정 최후진술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8시간 노동쟁취 투쟁으로 본격시작된 노동운동은 1889년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투쟁결의를 확산시켜 1890년 5월1일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결정, 산발적인 메이데이 행사를 치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23년 일제식민지 시절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하에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전까지 굽힘없는 투쟁으로 지속적 전개를 벌여왔다.

해방이후 이승만정권 하에서 미군정과 대한노총의 폭력적인 전령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 검거됐으며 과거 5월1일이었던 노동절을 대한노총의 결성일인 3월10일로 바꿔 한국의 노동절로 축하기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머리속에서 메이데이라는 말조차 아예 지워버림으로서 이땅의 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에 순종하는 일 잘하고 말 잘듣는 기계로, 의식없는 노동자로 만들어 남한의 민주주의적 노동운동에 암흑시대를 예고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본은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전쟁이후 단절되었던 5·1 노동절의 전통회복을 선언했다.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은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애써온 선배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새기는 기념의 날, 당면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날로 자리잡고 있다.

96년 제106주년 노동절을 맞아 우리 노동현실의 당면과제 해결에 큰 의의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 창립후 처음으로 맞는 노동절이기 때문에 96년 투쟁의 의미를 공유하고 나아가 96투쟁 승리를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둘째 임금가이드 라인 분쇄와 5월말~6월초 전국 노동자의 힘찬 총력투쟁의 장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투쟁과제인 노동악법 철폐(복수노조 인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철폐, 직권 및 일반중재 철회등)와 3대 사회개혁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간다. 네째 각 단위노조의 사회개혁 교섭권 위임을 총화하여 노동법 개정과 투쟁승리를 다짐한다등으로 우리 모두에게 메이데이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송선영 기자)

Mobile & Multimedia

21세기 정보통신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보세요!

동아일보와 한국이동통신에서는
21세기 우리나라 M&M(무선통신·멀티미디어)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수논문을 공모합니다.

M&M Mobile & Multimedia 논문대상

제1회 M&M 논문대상 공모

무선통신·멀티미디어

1. 응모 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2. 논문 주제 (아래 주제중 택일)
●멀티미디어 기반구조로서 이동통신의 발전 방안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개선 방안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 및 방송부문의 역할
●통신기술과 주파수 자원의 활용방안

3. 논문 분량
●본 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A4 Size 20매 내외)
●요약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A4 Size 3매 내외)

4. 시상 내역

등위	인원	상금	부상
대상	1	1,000만원	해외 통신업계 시찰, 상패, 기념품
금상	5	각500만원	〃
은상	5	각300만원	〃
동상	10	각200만원	상패, 기념품
장려상	20	각100만원	〃

5. 논문 작성비 지원
●단체 : 편당 10만원 ●개인 : 편당 5만원

6. 심사
●1차 : 서면 심사
●2차 : 논문발표 심사 (단, 1차 통과자에 한함)

7. 접수 기간
1996년 8월 19일 ~ 8월24일

8. 논문 접수처 및 문의
●주소 : (100-09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한국이동통신 홍보실 M&M 논문대상 담당자
●전화번호 : (02)3709-1996~1998
※우편접수도 가능 (반드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

9. 기타
●접수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응모논문은 창작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함
●단체접수시는 반드시 대학(원)장의 공문제출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주최자 소유임

■주 최: 한국이동통신 東亞日報社 ■후 원: 정보통신부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난 4월23일 미 2사단 걸산리 산불진화중 산림계장과 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화의 원인은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중 발사한 연막탄의 불꽃에 의한 것으로 잠정확인(?)되었으며 미군의 늑장출동으로 화재는 대형참사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 실태를 살펴보았고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더불어 동두천 산불참사 현장취재기를 싣는다. 〈편집자〉

1억평땅 무상대여·매년 4조2천억 헌납

범죄는 계속…촉매제 행정협정 개선돼야

지난 2월 오키나와는 주일미군의 여고생 성폭행사건으로 들끓었다. 오키나와시는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시위를 오키나와시주체로 벌였고, 결국 정부의 주재로 무마되었다. 옛날 식민지를 거느리고 같은 짓을 자행한 전범인 일본조차 잘못된점을 지적 한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주둔한다는 자칭 평화주둔군, 그들의 주둔 이유는 더 이상 이유가 될수없다.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세를 볼때, 경제력이나 식량난으로 한국 침공가능성에 대해 비관하고있으며 설령 전쟁이 난다고해도 한국의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수있다고 전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구실로 주둔하는 미군이 입히는 피해는 막심하다.

현재 주한미군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절반이 넘는 1억평의 땅을 쓰고있는데 용산을 예로 들면 현재 1백5만평의 땅이 미군기지로 쓰이고 있어 지하철과 도로가 기지를 피해 우회되는점과, 기지부근 건물의 고도제한등으로 서울시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이기지가 한푼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기간이 무기한이고, 미군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세금 감면등 온갖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3만7천여명의 미군들중 한명에게 매년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셈이다.

게다가 미군기지가 서울한복판에 위치하는등 서울근교와 지방대도시에 자리해 우리민족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있다. 더우기 지난 90년 용산 미군기지를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했으나 1백억달러의 이전비용을 전액 한국측이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이는 필리핀이 주둔미군에게 12억달러의 기지임대료를 요구한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빈발하는 미군범죄에 있어서도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일어난 미군범죄는 총3만9천4백52건(관련미군4만5천1백83명)이고 이중 0.7%만이 국내 사법처리되어 이는 일본의 32%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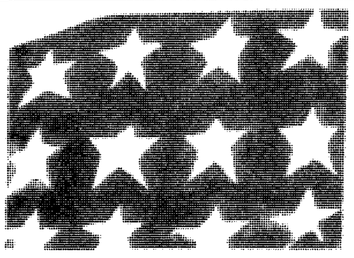
이런 모든 문제들의 공통된 원인은 제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이하행협)에 기인한다. 이승만부터 군사정권을 거쳐오는 동안 대미예속관계는 차라리 한국이 미국의 52번째주라는 얘기가 공공연이 나돌정도고, 지난 95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김대통령은 느닷없이 행협개정의지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전시군사작전권, 기지임대료문제등 보다 중요한 사안에는 접근하지 않고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 시기만을 논의하는등 행협을 개정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있다.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산하 미군범죄및 미군기지 실태조사 위원회의 김용한(위원장)씨는 "시민단체들이 불평등한 행협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며 "전국민적인 관심속에 국회차원에서 행협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분명코 행협의 개정은 시민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어릴적부터 반공을 세뇌 받았고, 미국의 저질문화사대주의에 물들어 계속터지는 미군범죄사건에도 무감각해지고, 빨갱이의 남침을 막아주는 고마운 미군의 그정도범죄와 몇푼을 더내는것을 눈감아줄수 있는 당연하다는 생각해온듯 싶다.

땅은 한국땅이고, 국민도 한국사람이되, 주권은 미국의 것이 현 실정이다.

더이상 있어야 할 존재가치를 잃은 주한미군, 궁극적으로 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자주권을 돌려받는 일은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아닌 주한미군의 철수일 것이다. (최승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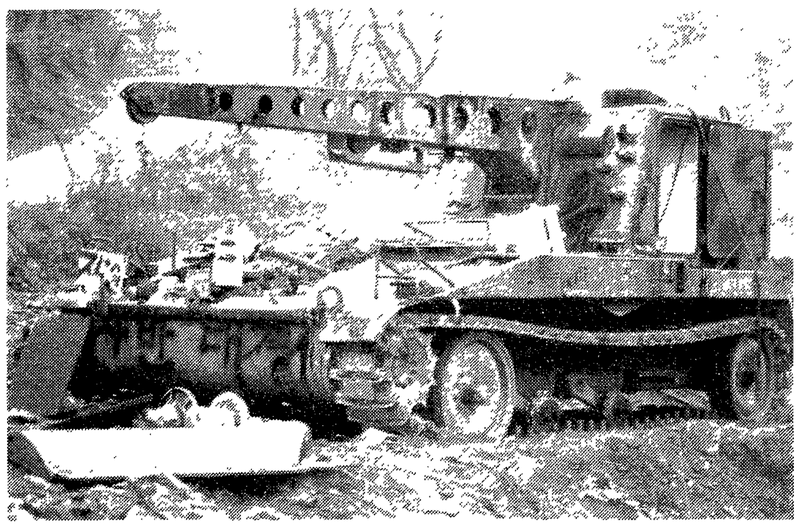


주둔, 고맙기만한 일인가?

◇르뽀—동두천 화재현장을 다녀와서

"누구때문에 죽은 목숨인데…"

오열하는 유가족…주민들의 힘겨운 공여지 반환운동



미군이 이땅에 주둔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비단 산불 참사 만이 아니다. 엄연한 주민들의 발터에 미군 공여지임을 내세워 사격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사진 좌는 사고당일 유가족의 오열모습, 우는 발터에 배치된 흉물스런 탱크의 모습.

동두천시청의 깨끗하게 단장된 정원옆 담벼락에는 흡사 비닐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할 나이에 미군이 낸 산불을 진화하려다 억울하게 산화해간 6명 젊은이의 영정. 오열하는 유가족들.

보상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한 어머니는 또다시 참았던 눈물이 난다. "이놈들아. 내아들 살려내라. 돈도 뭣도 다 필요없으니까 내 아들이나 살려내. 내아들을…." 찬 바닥에 맨발로 나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고인의 어머니 모습에 주변에 있던 유가족들은 가만히 고개를 돌린다.

"죽일놈들. 불낸 지놈들이 조금만 빨리 껐으면 이지경 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분노를 씹어 삼키는 아저씨는 "불난데 가는 길중에 제일 가까운 길이 어딘줄아나? 바로 미군기지 통과해서 가는 길이야. 불낸놈도 미군이고, 불난데서 제일 가까운 곳도 미군기지인데 지놈들은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니 울화통이 터지지."라고 말하며 돌아안는다.

그러한 유가족의 모습을 뒤로하고 시청을 나와 당시 진화현장에 있었던 의용소방대원 전병수(47세, 상업)씨를 만나 보았다. "그날 미군 소방대도 70명정도 있었다는데 불길 센 곳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라며 미군 소방대가 산불진화에 적극성을 띄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불을 다 끄고 내려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게,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사람이 타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말하며 사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로 미군은 사건당일 11시40분에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시10분쯤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최소한 1시간 10분 이상 지난 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초기진화에 소홀했고 그에 따라 피해는 대규모 화재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사고 주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원기(22세, 공익근무요원) 씨의 진술에 의하면 '불을 거의 다 껐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산림계장이 점심먹으러 가자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불길이 치솟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동두천 민주시민회(회장=강홍구) 부회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불을 거의 다 끈 상태에서 낙엽에 잔 불길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피하지도 못할 정도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까?"라고 반문한다. 또한 "사람이 몸에 불이 붙으면 나갈아도 불을 끄려고 뒹글거나 저항했을 겁니다. 근데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한 119구조대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신 7구가 2, 3미터 안에 모여있었고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 없었대요.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강력히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사고현장이 가스탄 사격장(오스카 훈련장)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불발탄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가스탄이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어 강력한 폭발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이 초동진화에 늑장을 부렸고 진화작업에도 적극성을 띄지 않았음은 위험성을 미리 인식한 몸사리기였던 것이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끔찍이 생각하는 미국의 태도를 이번사건에도 여실히 드러낸 모습이다.

미군의 이러한 태도는 산불의 화재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다시 마주칠 수 있었다. 합동분향소로 가는길에 우연히 마주친 쇠목마을 천막농성 현장. 미군이 사격장의 확장이유로 엄연히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밭터에 흉물스런 탱크를 배치해 자기땅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에 주민들은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50일째 '미군사격장 확장저지 및 공여지 반환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힘겨운 싸움이다.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동두천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미군의 땅. 그들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우리 농민의 땅을 빼앗는데도 정부의 눈과 입, 귀는 한미행정협정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을 뿐이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소녀를 추행했을때 일본정부가 보였던 모습은 그들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다. 산불참사 이후 동두천시장은 각 초등학교에 유가족 돕기성금에만 열중이고, 우리의 문민 대통령은 커다란 화환에 이름석자를 적어 보내왔다. 초라한 비닐하우스 분향소앞에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서있던 그 화환위로 통곡하던 고인의 어머니 모습이 자꾸만 겹쳐 떠오른다.

"미군이 이번 산불참사 이후에 한 일은 위로금 60만원 던져준것 뿐입니다. 이게 개죽음이지. 미군놈들은 지들 개가 죽으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때문에 죽은 목숨인데. 누구때문에…."

(김기영 기자)

붓끝만필

괘씸죄와 개혁

한 만 수

'괘씸죄'라는 말이 또다시 항간에 유행한다. 4.11 총선에 야당으로 출마했던 한 당선자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들 말하는 모양이다. 사실 형법 어디를 들춰봐도 권력자가 괘씸하게 여길일을 했다고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괘씸죄라는 죄목이 공공연히 운위되는 현 상황은 봉건시대를 연상케한다. 길을 가다 양반을 만나고도 감히 비켜서지 않거나 인사를 하지 않은 '상놈'들을 잡아다가 물고를 내던, 불경죄 괘씸죄라는 죄목이 공공연히 적용되던 조선시대 말이다.

물론 언필칭 법치국가임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괘씸죄라는 죄목으로 의원당선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적용법규야 엄격한 선거법 위반이고 실제로 그는 위법사실이 있긴 한것같다. 그런데도 괘씸죄라는 여론이 분분한 까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대문이다.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여당 소속이 훨씬 많은데도 어째서 야당당선자들만 줄줄이 불러대는가 전두환씨의 검은 돈 61억원을 사과궤짝에 숨겨주었던 사람은 어째서 여태 안녕하신가. 그가 야당소속이었더라도 지금 버젓이 푸른 하늘을 보며 지낼 수 있을까. 작은 고기만 잡는 희한한 그물이 바로 법망이라는 역설은 이미 상식이 되다시피했거니와, 이 정권이 서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고기만 골라잡는 '표적사정', '괘씸죄'라는 그물이 무소불위의 위력을 떨치는 중이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방법이 잘못돼서 욕을 먹는 사람이 있다. 이 정권이 그렇다. '5·18'과 '12·12'의 책임을 물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돈 안쓰는 선거를 해보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기여한 사람까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천했으니 탈이고 우리 후보가 돈쓰는 것은 괜찮지만 야당후보는 안된다는 식으로 법운용이 되고 있으니 말썽이다. 방법이 공명정대하지 못한 탓에 내건 목표까지도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개혁을 주창하는 집권당이기에 더욱 도덕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했어야 하고 선거운동 또한 그 정신을 따랐어야 했다. 개혁기의 괘씸죄라면 집권당 후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문책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해서 치뤄지는 보궐선거라면 국민들은 오히려 여당에 더 많은 표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는 과연 순진한 환상에 그치는 것일까.

문화 평론가

21C 초일류 고급지

최고의 발행부수·최정상의 스포츠신문

스포츠서울

하루 50만명… 접속폭발의 "인터넷 신문"

뉴미디어 총아

최신뉴스·프로야구·인기스타 총정보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뉴스넷

웹주소=www seoul.co.kr

첨단 전자신문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뉴스넷 Seoul Shinmun News Net

뉴스사진 News in Picture · 프로야구 Pro Baseball · 국정신문 Kookjeung Shinmun · 연예인 Talent · 북한인 North Korean

21C 종합정보센터… 정상의 자매지

뉴스피플 NEWS & PEOPLE · QUEEN · TV 가이드

서울신문

새로운 話題! 서울신문에 여론주도층 시선집중

서울신문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정부뉴스는 단순히 정책홍보가 아니라 곧바로 국민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정보입니다. 가령 세제개편 같은 뉴스는 기업인은 물론, 우리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부정책뉴스를 가장 빨리, 가장 깊이있게 전하는 신문입니다. 「정부시책 이렇습니다」, 「올해 국정 이렇게」, 「국무회의 중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법예고」등의 고정란을 보시면 서울신문이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생활의 가교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질(質)로 경쟁하는 초일류 고급지입니다.

서울신문은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서울신문은 이 사회의 중산층, 지식인, 오피니언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관심사를 심층보도하는 초일류 고급지입니다. 兩是兩非가 아닌 一是一非의 명확한 논조, 1면의 통사설, 24면 중 2면이나 할애하는 주요인사 동정,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석학들의 깊이있는 논평… 그래서 서울신문은 「스크랩할 것이 많은 신문」, 「논평과 심층분석 기사가 많은 신문」, 「다른 신문을 보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보는 신문」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부수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영국의 「더 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등 세계 초일류 고급지들은 발행부수가 100만부를 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도 무가지나 홍보지 등으로 낭비적인 부수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료와 광고주들의 광고료만으로 운영되는 신문, 오피니언 리더들만을 독자로 하는 신문, 합리적이고도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흑자로 운영되는 신문, 그리하여 21세기 세계 초일류 고급신문, 이것이 바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社 ■구독신청=(02)721-5555~6

개교 90주년 기념 행사

본교는 올해 개교 90주년 기념으로 학내외적으로 많은 행사를 치룬다. 여러 행사중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행사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개교 90주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윤이상 음악제

'비천! 겨레의 하늘을 날아…'

예약 나모 바라 등 연주

조국에 대한 좌절과 상처로 점철된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작곡가로서 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띠는 통일운동가나 친북인사로 기억할 것이다.

1967년 동베를린 사건. 이 사건은 67년 6월17일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납치, 대규모 조작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얼마뒤 석방된 사건을 가리킨다.

10여년 전에 떠나온 조국으로 끌려와 그가 당한 고통은 10여년이 지나도록 치유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민족과 조국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쩔 수가 없었다. 동베를린 사건 이후 그는 "억압받는 민족과 민중, 분단으로 빚어지는 모순, 민족통일의 문제, 세계평화의 문제들은 나의 삶, 나의 예술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며 그의 변화된 의식을 내비치며 민족현실을 음악으로 형상화시켜 나갔다. '광주여 영원히'(1981) '나의 땅 나의 민족(1987)'과 같은곡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면만 가지고 그를 세계적 음악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의 작품 '예약(1966)'이나 '나모(1971)' '견우와 직녀 이야기(1976)'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속적인 소재를 이용해 민족전통음악을 서양의 현대기법으로 옮겨 놓은 것이 그의 세계적 수준을 가늠케 한다.

이번에 개교9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비천, 겨레의 하늘을 날아…'라는 윤이상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회는 국내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음악계나 대중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용의 지휘와 KBS교향악단의 연주, 그리고 소프라노 이병렬, 바리톤 고성현등 역량있는 음악인들의 화합으로 이루어 내는 그의 음악세계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의의로 승화되어 겨레의 하늘을 자유로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음악회는 제1부에서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말년에 불교에 귀의해 남긴 여러 불교적 작품 중 '바라(1960)'와 초기가곡 및 기악곡을 연주하며, 제2부에서는 개교90주년을 경축하는 만남과 축제의 무대가 펼쳐진다.

오는 17일 서울캠퍼스 불상 앞에서, 작년 11월 타계할 때까지 조국문제에 시달리면서 정치와 예술 그리고 민족과 예술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가를 제시한 고인의 음악세계를 통해 본교가 지향하는 민족대학 건설 이념을 되새겨 볼만 하겠다.

◇열린 음악회

학생·학교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될 듯

가수 박정운 송창식 테너 김영환 등 출연

개교 90주년을 맞이하게되는 학교측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일 본교대운동장에서 KBS열린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으로서 15만 동문과 학생, 학교측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고 방송을 통한 본교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기위해 학교측은 KBS에 보조비로 1억5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행사에 학교측의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본 프로그램 녹화에 앞서 6시30분부터 30분정도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학교에서 제작한 학교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이번 행사에 참석한 외국자매대학 총장과 내빈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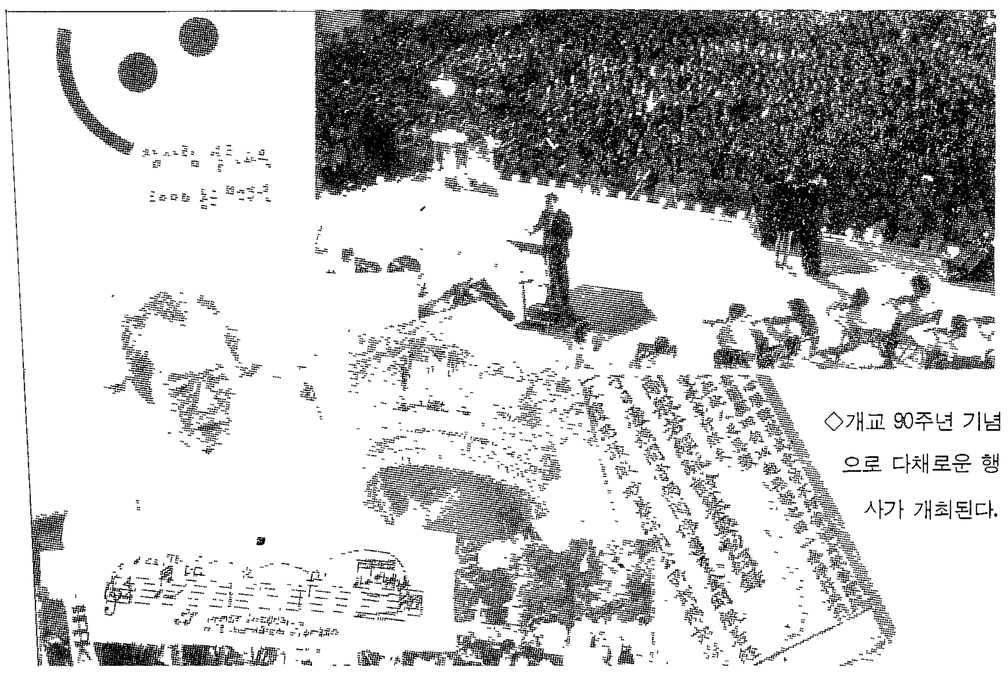
이후 백상응원단이 출연하여 학생과 학교측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동대응원가'등을 부르는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인 열린 음악회에는 가수 송창식, 해바라기, 심수봉, 박정운 테너 김영환등이 출연하여 본교 교정에 분위기있는 대중음악과 클래식으로 흥겨운 무대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매번 마지막주 금요일에 실시하던 '캠퍼스 차 없는 날'을 행사 진행을 위해 이날에 실시하며 동악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아 학생들에게 기념행사 일정을 알리고 있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이날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대운동장에 학생증을 지참하면 입장을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개교 90주년을 구성원 모두가 축하하며 즐길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교 90주년 기념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대동제

통일 대행진, 퀴즈대회 등 개최

동국 90년 전망 모색하는 장 될듯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며 동국 90년의 현실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는 장이 될것이다"

학교당국이 준비하는 90주년 행사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불교4)는 이번 대동제에 관해 설명한다.

'교육재정확보와 동국발전'이라는 대동제의 모토아래 총학생회는 거교적인 구성원들의 참여속에 진정한 학교발전의 내용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따라 작년 대동제 예산이 5백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9백만원으로 인상 책정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정은 14일부터 17일, △14일=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통일 선언일 △15,16일=동국의 날 △17일=민족자주의 날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아직 세부일정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교 90주년에 걸맞는 대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4일 통일선언일에는 관광차량을 이용하여 문산까지 이동, 4-5Km를 도보로 행진하는 '통일대행진'을 벌인다. 이후 민중가수들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15.16일 동국의 날에는 각과, 동아리들이 만든 90가지의 조형물을 학내에 전시하고 90주년관련 그림그리기, 엽서전시회등이 펼쳐지며 일만 동국이 함께하는 대동한마당 및 체육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만해광장에서는 각 과에서 준비하는 일일주점이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날에는 스승의 날과 관련, 교수 학생 토론회가 계획됐으나 개최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17일에는 민족자주의 날 선포식이 있고 5·18 관련 영화가 상영되며 녹두사거리에서 시민학생 한마당이 개최된다. 시민 학생 한마당에서는 노래제와 함께 5·18간담회가 열릴 예정이고 후문앞 일방통행에 관한 문제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자주강좌, 의견개진운동, 퀴즈대회등 여러 행사가 논의중에 있다.

◇비전! 동국후원의 밤

21C 주도 대학으로

학교측은 21세기를 주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한 '비전! 동국 100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교 90주년 행사로 오는 29일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갖는다.

이 행사는 21세기 교육목표인 '참사람 열린 교육'을 정립하고 과학기술 집중 캠퍼스인 고양시 신캠퍼스 건설과 각 캠퍼스의 특성을 살려 집중투자 하는것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인 저작도서전시및 판매

교수·동문 저작도서 총망라

전시책 15~20% 할인판매

개교9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동국인 저작도서 전시 및 특별판매' 행사가 생활협동조합(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주관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다.

이 행사는 본교 교수 및 동문들이 집필한 책들을 총망라해 소개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와 더불어 염가판매까지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도서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협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늦게 결정돼서 당초 6일 예정이던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교수님들의 저작·연구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들이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책들을 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전시와 판매를 위해 6백여권의 책이 집계됐으나 전시 장소의 제한과 절판 등으로 인해 3백권 안팎의 책이 소개될 예정이다. 도서전시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하며 판매는 전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내서점 '붓골'(현만해서점)에서 따로 할 계획이다.

전시된 책중 조정래씨의 태백산맥, 신경림씨의 농무등 다수의 교수 및 동문 저작들이 15~20%내에서 특별판매된다.

◇중국민속품전시회, 황해 문화 대탐사

칠보도자기 등 2백여점의 중국 민속품 전시

절강성에서 인천에 이르는 1천20킬로미터 대탐사

오늘(6일)부터 10일까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는 개교90주년 기념 중국 민속품 전시회가 열린다.

오후 3시 개막식으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회는 중국 대사관측이 제공한 칠보 도자기, 자개그림, 전통사찰사진, 부채등 다채로운 중국의 민속품 2백여 점이 전시되게 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중국과의 수교후 한창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민속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 중국 민속품들을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관람하는 것도 대학생활중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개교 90주년 행사중 이색적인 행사가 하나 있다.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치르는 '황해 문화 대탐사'가 바로 이색적인 기념 행사인데, 대나무 뗏목을 타고 중국 절강성,흑산도,고군산도,인천에 이르는 거리 1천 20킬로미터의 대탐사를 하게 된다.

이번 탐사를 통해 고대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으로 공산품과 공예품을 수출하고 우리의 문화를 전파했던 항로를 탐사하여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우리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황해의 문화환경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보·보물귀중본전

빛나는 인쇄문화 한눈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53점 전시

박물관(관장=홍윤식·역사교육)은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빛나는 전통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국보·보물귀중본전'을 7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국보1점, 보물11점을 포함 53점의 경전 및 서적이 소개되는 이번 행사는 모든 전시품이 본교가 소장한 보물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요 전시품을 살펴보면 국보21호 '수능엄경'을 비롯 현존 세계최고(最古)를 자랑하는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보물 740호인 '보살선계경' 8권이 있다.

또한 최근 본교에 소장된 '대반야바라일경'은 3백68권중 약 2백여권 정도만이 남아있는 초조대장경의 일부로 아직 국가보물로 지정된 바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연구가치를 갖는 보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그밖에 다양한 변상판화가 삽입되어 16세기 불화양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치를 인정받는 '묘법연화경'과 '불설아미타경' '불설대목련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 전시된다.

〈개교기념행사 특별취재반 김희동, 고지은, 이태훈 기자〉

"마당발"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외칠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삼양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공부함으로써 현지적응을 추구하는 海外파견제도-
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파견제도는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영역: 화섬, 식품, 사료, 화성, 금융, 무역, 기계, 환경,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약
• 해외활동: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지점망 확대에 주력

삼양그룹
삼양사, 삼양증기, 삼양제넥스,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성, 신한제분
삼양종합금융, 삼양메디케어, SY텍스타일, 삼양텍스, 삼양데이타시스템

특집/개교90주년

특집/본사 지령 1200호

본사선정

선정 소감

동국 90년 자랑스런 90인

미래의 지표 세우는데 도움되길

우리 동국대학이 1906년 개교이래 90년 성상을 겪으면서 민족사학의 자긍을 구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동국을 거쳐나간 동국인들은 한결같이 여러 분야에서 자랑스런 전통과 명예를 쌓아오고 있다. 이제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의 학풍과 전통을 잊고 사회적 신망을 받으며 동국의 성가를 드높여온 면면들을 살펴보건대 미처 다 헤아리기 어려울 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교 90주년을 자축하고 동국 100년을 바라보며 각계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동국인을 선정해보기도 했다. 감히 어느 누구나 머하고 덮하고 하는 가늠이 난감함에도 오늘의 모습을 자랑스레 펼치고 미래의 새 지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을 믿으며 90인을 선정해 보았다. 어쩔수 없이 자료의 부실과 객관성의 결여 판단의 공석함이 드러나겠지만 아무쪼록 너그러운 호양의 미덕으로 양해주기 바란다.

국회의원·장차관 꾸준한 배출

민족선각의 건학이념 구현 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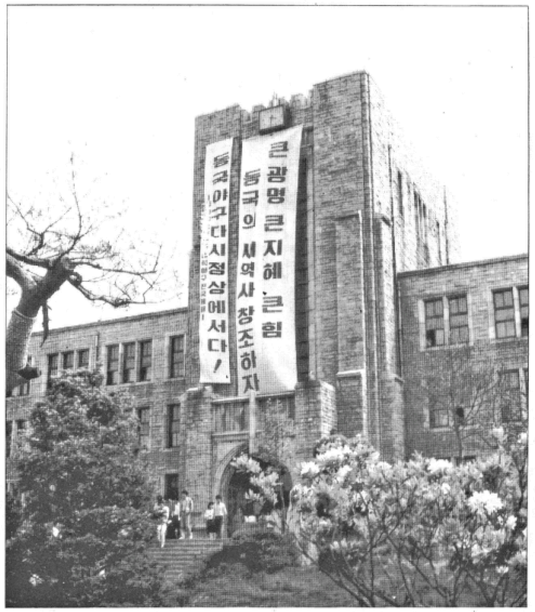
△권노갑(60·경제) 국회의원(3선), 의원협의회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김광선(87·체고) 권투선수, 88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 '85월드컵 금메달
△김동정(57·법학) 변호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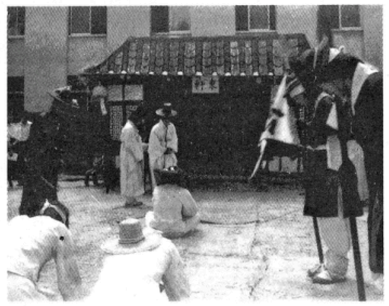
대학총장 재임… 지식인 양성 주도

서정주·조정래 등 한국문학 대들보로

△김상룡(56·불교) 원광대총장
△김상훈(59·국문) 부산일보주필겸 전무이사, 시조시인
△김성한(62·체고) 프로야구코치, MVP 2회, 최다안타상 2회, 최다홈런상 2회, 골든글로브 6회
△김영구(62·경제) 국회의원(5선), 민자당 원내총무—사무총장, 정무장관
△김영남(84·체고) 레슬링선수, '88서울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레슬링 국가대표코치
△김영환(62·경제) 대우그룹 부회장
△김은하(52·정치) 전 국회의원(6선), 국회부의장, 신민당원내총무, 민한당 부총재
△김용환(48·전문) 서예가, 국전 초대작가, 한국전각학회 회장, 동방연서회 회장
△김장호(49·전문) 시인, 한국PEN이사, 본교명예교수
△김재기(60·경제) 한국주택은행장, 외환은행장,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김재철(61·국문) 연출가, KBS제작위원
△김희수(95·연영) 탤런트, '96서울국제광고대회 공식홍보요원
△김희광(47·혜정) 조계종원로회의 부의장,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김훈기(62·정치) 노동부차관, 광남지사
△김희욱(72·법학) 의성지청장, 대법원 환경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무진장(64·불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장
△문명림(54·정치) 해운항만청장, 교통부차관
△문태식(49·전문) 아주산업그룹 회장
△박노영(58·경제) 육군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로마교황청대사
△박배근(67·법학) 치안본부장, 인천지방시장, 대구직할시장
△박상규(61·국문) 국회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박성배(58·철학) 뉴욕주립대 한국학과설치, 뉴욕주립대 종교학과 교수
△박영석(91·체고) '93에베레스트 남동릉 무산소등정 세계기록
△박원일(61·불교) 대한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장
△박익주(61·정치) 전국회의원(2선), 국회 건설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박주인(58·법학)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부연수원장, 순천지청장, 변호사
△박군익(61·법학) 환경청장, 롯데칠성(주)사장
△박준형(63·경제) 신라교역그룹 회장
△박진희(52·경제) 경북광유(주)회장, 한국석유협회 부회장
△박태권(75·정외) 충남지사, 문화체육부차관
△백영철(62·법학) 관동대총장
△서정주(38·중불) 시인, 예술원 회원
△송기성(48·전문) 변호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고법판사
△송보열(57·경제) 제일은행장, 제일시티리스(주)회장
△신경림(58·영문)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신상우(64·법학) 춘천지검장, 부산고법 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신석균(56·임학) 국제발명메달리스트 명예회장, 발명학회장, 국제발명상 60건, 금탑산업훈장
△신순범(61·정치) 전 국회의원(4선), 국회 경과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신준호(64·경제) 롯데그룹 부회장
△유근창(49·전문) 원호처장관, 국방차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한국주택협회회장
△유해형(60·영문) 경찰대학장, 카타르대사
△유월탄(68·불교) 불교신문 사장, 조계종중앙종회 의장,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유주형(57·농학) 충남방적그룹 부회장
△유현목(49·전문) 영화감독, 예술원 회원, 한국영화학회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은형두(62·법학)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한국도서유통협의회장, 한국출판학회장
△이경재(60·영문) 국작가, 국제펜클럽
△이근삼(52·영문) 극작가, 국제펜클럽
△이덕화(83·연영) 한국연기지협회장, 모스크바영화제 최우수남우주연상
△이민휘(56·정치) 재미한우회 총회장, 서울올림픽 재미후원회장, 재미체육회명예회장
△이방주(50·국문) 노산문학회장, 동악한문학회장, 본교명예교수
△이서옹(35·중불)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백양사조실, 고불총림방장
△이석률(58·정치)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태평양생명(주) 사장
△이연택(61·법학) 총무처장관, 노동부장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이영창(58·법학) 치안본부장,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이인정(72·상학) 한국마나슬루등반대장, 한국산악연맹회장
△이종국(57·영문) 치안본부장, 충남지사
△이종출(54·국문) 세종대총장
△이종호(58·법학) 중외제약그룹 회장, 제약협회장
△이준동(56·경제) 풍림산업(주) 회장
△이중화(58·화학) 세종대총장
△이창배(52·영문) 영문학자, 한국영어영문학회장
△이해방(64·화학) 생체의료고분자 학자, 미국 유타대 교수, 한국화학연구소 생체의료고분자실장
△이형원(67·불교) 불교신문 사장, 재미홍법원장, 국제불교협의회 총재
△임덕규(60·법학) 전 국회의원, 세계국제법학회 세계회장, '다름로머시' 발행인
△전운덕(62·경제) 대한불교전태종 총무원장
△정관용(58·법학) 총무처장관, 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장
△정두석(31·중불) 한국불교태고종장
△정상영(61·법학) 고려화학—금강회장
△정운경(56·영문) 중앙일보 전무이사, 시사만화가
△정재철(52·정치) 국회의원(4선), 국회재무위원장,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장, 정무장관, 한일은행장
△정 종(38·중불) 한국공자학회 회장
△조용중(50·전문) 경향—MBC 전무, 연합통신 사장, 한국 ABC협회장
△조정래(64·국문) 소설가, 장편 '태백산맥'—'아리랑'집필
△채시라(93·연영) 탤런트, MBC연기대상 94—95년 2회연속 수상
△천혜봉(59·사학) 서지학자, 성균관대도서—박물관장, 도서관학회장, 서지학회장
△최재구(52·국문) 전 국회의원(4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신한국당 상임고문
△최형우(63·정치) 국회의원(6선), 민자당 사무총장, 정무장관, 내무부장관
△한대희(83·체고) 프로야구선수, MVP, 골든글로브 6회
△허동화(57·법학) 한국자수박물관장, 문화재 전문위원겸 감정위원, 한국박물관협회장
△현광호(51·국문) 제주대총장
△홍봉래(53·법학) 동해화학공업(주)회장
△홍숙자(55·정치)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황갑순(52·정치) 전주대총장,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장
△황 명(55·국문) 시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황밀수(53·정치) 전 국회의원(4선), 국회 보사—국방위원장, 민자당 사무총장
△황승민(63·상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재단 이사장
△황용운(54·경제) 부산은행장, 한국생명(주)사장, 동부증권(주)사장
△이갑규(65·법학) 국회의원(3선), 자민련 총재비서실장, 한국기자협회장
△이근직(58·불교) 원광대학교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이명재(61·국문) 서울대 교수, 한국문학회장
△이명호(58·법학) 치안본부장, 국회의원,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이인정(72·상학) 한국마나슬루등반대장, 한국산악연맹회장
△이종국(57·영문) 치안본부장, 충남지사
△이종출(54·국문) 세종대총장
△이종호(58·법학) 중외제약그룹 회장, 제약협회장
△이준동(56·경제) 풍림산업(주) 회장
△이중화(58·화학) 세종대총장
△이창배(52·영문) 영문학자, 한국영어영문학회장
△이해방(64·화학) 생체의료고분자 학자, 미국 유타대 교수, 한국화학연구소 생체의료고분자실장
△이형원(67·불교) 불교신문 사장, 재미홍법원장, 국제불교협의회 총재
△임덕규(60·법학) 전 국회의원, 세계국제법학회 세계회장, '다름로머시' 발행인
△전운덕(62·경제) 대한불교전태종 총무원장
△정관용(58·법학) 총무처장관, 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장
△정두석(31·중불) 한국불교태고종장
△정상영(61·법학) 고려화학—금강회장
△정운경(56·영문) 중앙일보 전무이사, 시사만화가
△정재철(52·정치) 국회의원(4선), 국회재무위원장,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장, 정무장관, 한일은행장
△정 종(38·중불) 한국공자학회 회장
△조용중(50·전문) 경향—MBC 전무, 연합통신 사장, 한국 ABC협회장
△조정래(64·국문) 소설가, 장편 '태백산맥'—'아리랑'집필
△채시라(93·연영) 탤런트, MBC연기대상 94—95년 2회연속 수상
△천혜봉(59·사학) 서지학자, 성균관대도서—박물관장, 도서관학회장, 서지학회장
△최재구(52·국문) 전 국회의원(4선),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신한국당 상임고문
△최형우(63·정치) 국회의원(6선), 민자당 사무총장, 정무장관, 내무부장관
△한대희(83·체고) 프로야구선수, MVP, 골든글로브 6회
△허동화(57·법학) 한국자수박물관장, 문화재 전문위원겸 감정위원, 한국박물관협회장
△현광호(51·국문) 제주대총장
△홍봉래(53·법학) 동해화학공업(주)회장
△홍숙자(55·정치)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황갑순(52·정치) 전주대총장,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장
△황 명(55·국문) 시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황밀수(53·정치) 전 국회의원(4선), 국회 보사—국방위원장, 민자당 사무총장
△황승민(63·상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재단 이사장
△황용운(54·경제) 부산은행장, 한국생명(주)사장, 동부증권(주)사장

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





◇ 1906년 개교이래 수많은 동국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90년의 역사속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동국을 빛낸 인물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흐뭇한 일이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서 동국의 밝은 내일을 예감한다.(왼쪽 사진은 아구투우승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명진관의 전경이며 오른쪽은 시계방향으로 무산소 등반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박영석등문, 우승을 자축하는 아구선수들의 행가래, 연예계동문들의 녹화, 동굴탐험부의 탐사모습이다.

"동대출신 없으면 드라마 못만든다"

장군·경찰동문들 국태민안 선봉장

올림픽금메달·프로야구 MVP 다수

무산소 에베레스트등정 고기 '펄럭'

불교계 총본산…고승대덕 후광빛나

법조·문화계 등 '동국' 명성 드높아

선정경위

동국의 현주소 재확인

미래 기여도에 주안점

대학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다. 한대학의 존재가치는 그 대학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민족과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의 여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점에서 우리 동국대학은 1906년 개교이래 수많은 인물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성가를 높이 펼치고 있음을 능히 자부할 수 있다. 이에 동국을 거쳐간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90인을 선정하여 동국의 현주소를 거듭 확인하는 한편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가는데 있어 빛나는 지표의 일단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90년에 걸친 전통 속에 기라성으로 빛나는 동문들을 단순히 개교 90주년을 기리는 뜻에 90인으로 한정한다는 발상자체가 애당초 무리였음을 굳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혹여 진정 자랑스런 동국인들의 면면들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칠까 두렵기도 하였고, 단순한 기준치를 어설프게 적용하여 개개인의 명성을 가늠하는데 부실함을 저지르게 될 우려가 실로 컸다.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가 있음지라도 나름대로 일관된 준거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골라보는 일도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라 여기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인물선정의 기준을 정하고자 지난 86년 본지에서 이미 시행한 바 있는 80인 선정의 예를 기본지침으로 놓기로 하고, 그 내용에서 몇몇 조건을 보완하였다. 이 점도 교내외 관련인사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였다.

세분화된 선정기준을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대상은 명진학교 이후 본교의 전신 및 학부졸업생에 한한다. 단 중퇴자는 별도 사정하기도 한다. ②입단 생존자에 한한다. ③망적기준에 있어 경력사항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명망과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기준에 충분히 합당하더라도 현재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경우는 제외하기도 한다. ⑤공적사항의 내역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국내외에서 동국을 크게 빛낸 업적을 가린다. ⑥학자로서는 뚜렷한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갖춘 자 ⑦국회의원은 위원장급, 당총진, 3선이상으로 한다. ⑧관계는 장차관급 이상으로 하며, 경찰직에 한해 치안감까지 포함시킨다. ⑨외교관은 대사급 이상, 군장성은 3성장군 이상으로 한다. ⑩법조계는 대법원·대검 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⑪교육계는 시도교육감 이상, 또는 대학총장급 이상으로 한다. ⑫언론계는 편집국장급 이상으로 한다. ⑬문인의 경우는 저명도와 수상경력 등을 참고로 한다. ⑭문화·체육·연예계의 경우는 사회적 지명도와 국제적 경선의 수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⑮기타 각계 단체의장이나 국제기구의 임원, 화려한 사건의 주인공을 포함시킨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일차 자료탐색에 들어갔다. 자문인사를 사이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생존자에 한하는 조건과 현재 본교 재직중인 동문은 제외하는 경우의 부당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본지의 선정취지가 재학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감과 현재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생존자에 국한하기로 하였고, 또 본지가 학교의 기관지인만큼 본교 재직 중인 인사는 사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큰 아쉬움이 남고 전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용인되지 않는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

인물선정의 기초자료를 상기 위해, 동국인명록·동우회보·동대신문·동아연감·기업연감·한국불교총람·동국문학인명록 등을 참고로 하여 후보자 리스트를 300여명 1차로 정하는 한편, 교내 구성원들과 동창회측 등에 추천의뢰서를 배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300여명을 두고 본지 기획부에서는 교내외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면서 90명으로 추려나가는 작업을 했다.

크게 정치·외교계, 군·경찰계, 법조계, 경제계, 종교계, 문화예술, 연극영화, 문화계, 체육계, 교육·학계 등의 영역에 걸쳐 균등하게 안배되도록 노력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탁월한 업적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외에 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또 같은 계통의 업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선후배 관계를 고려하였다.

이번 작업을 통해 새삼스럽게 찬연한 동국인맥의 우람함을 깨닫게 되었다. 정녕 자랑스럽게 각계각층에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동국인의 면면들이 실로 본지의 전지면을 덮고도 넘치게 넘을 앞았다. 90인을 선정한 기쁨보다는 두루 다 여기에 올려 동국인의 기상과 역량을 알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더욱 컸다. 향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면 필경 일백의 몇배를 올겨야 할 것이다. 새롭게 도약해나가는 동국 미래의 전망이 여기 나무도 뚜렷하게 떠오르는 기운을 점감하면서 동국 90년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는 선정경위를 밝혀두는 바이다.

(기획부)

개교 90주년 "참사람 열린 교육"

설문조사

본사는 본교 개교 90주년과 본지 지령 1200호 발행을 기념해 학교와 동대신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3일 실시했다.

총 3백부를 배포, 수거한 이번 설문조사는 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별방문을 원칙으로 했으며 퍼센트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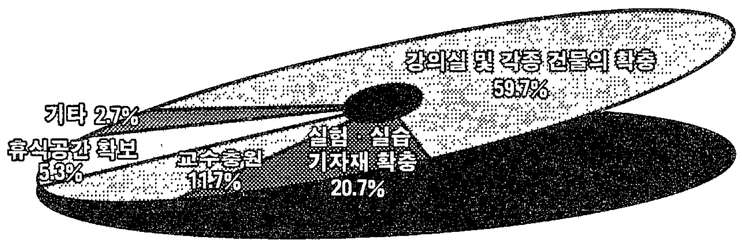
◇설문 I —학교

이공계열 집중육성·건물 확충 시급

'발전 기금 참여하겠다' 67%

기념행사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관심은 저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본교의 발전을 위해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기본 인식

'개교개념일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254명 84.7%) △모른다(46명 15.3%)로 대답해 재학생중 상당수가 개교기념일을 아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가는 △안다(110명 36.7%) △모른다(190명 63.3%)로 나타나 많은 학생이 교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회가 없었다(150명 78.9%) △너무 어렵다(22명 11.6%) △종교적 색채가 짙어 배우지 않았다(5명 2.6%)의 순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교가를 부르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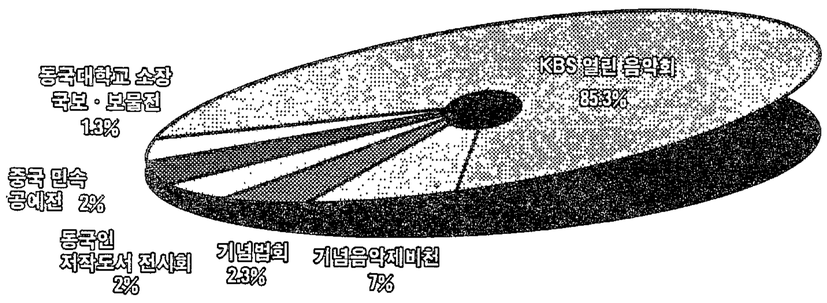
본교가 중점 육성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공계열(128명 42.7%) △인문사회계열(82명 27.3%)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학계열(31명 10.3%) △예술체육계열(25명 8.3%) △어문계열(21명 7%) △불교계열(10명 3.3%)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강의실 및 각종 건물 확충(181명 60.3%)이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 매년 마다 문제시되는 공간확보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68명 22.7%)도 투자가 시급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개교 90주년

본교가 93년부터 실시해온 '동국발전기금 모금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193명 64.3%) △모른다(107명 35.7%)로 나타나 실시 기간에 비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발전기금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졸업후에 참여하겠다(133명 44.3%) △참여할 수 없지만 적극 홍보하겠다(35명 11.7%) △재학 중에 참여하겠다(19명 6.3%) △부모 또는 친지를 통해 참여하겠다(14명 4.7%) 등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01명으로 67%를 차지했으나 △참여하고 싶지 않다가 98명으로 32.7%나 돼 학교에 대해 적지 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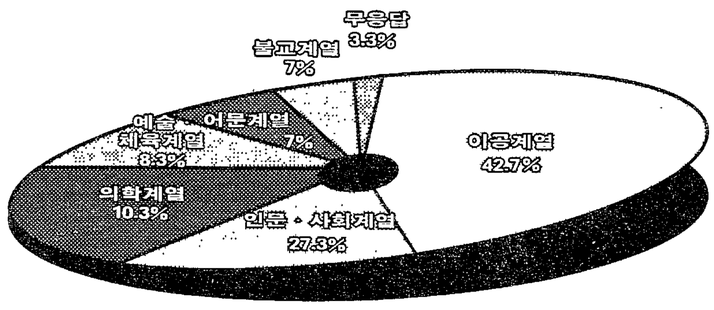
개교90주년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35명 11.7%) △알고 있다(165명 55%) △잘 모른다(64명 21.3%) △전혀 모른다(36명 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개교기념행사 참여 여부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11명 3.7%) △참여하겠다(48명 16%)의 참여(59명 19.7%)의견과 △참여하지 않겠다(59명 19.7%)는 의견이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잘 모르겠다가 182명으로 60.7%나 돼 개교기념행사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념행사를 잘 모르는 이유를 △홍보부족(67%)으로 지적했다. 가장 관심 있는 개교기념행사를 묻는 질문에 △KBS기념음악회(256명 85.3%)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가운데 △기념음악제 비천(21명 7%) △기념법회(7명 2.3%) △중국민속공예전(6명 2%) △동국인 저작도서 전시회(6명 2%) △동국대학교 소장 국보.보물전(4명 1.3%)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기념행사의 홍보부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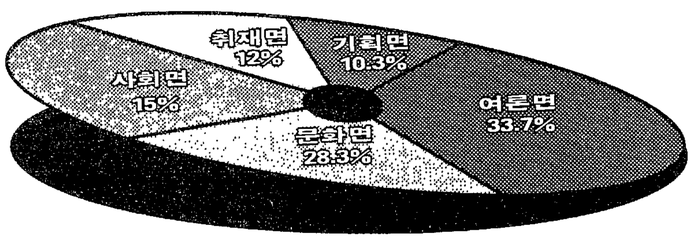
(취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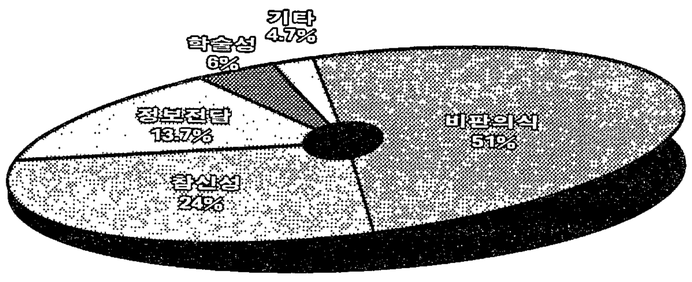
개교기념 주간에 개최될 다음의 행사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교가 중점 육성해야할 계열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관심있게 보는 면은 어떤 면입니까?



대학신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 II —신문

'한달에 2번(22.7%) 죽 훑어본다(39.7%)'

여론면 가장 선호·회전무대 애독

동대신문 대체로 신뢰 영향력은 떨어져

기본 인식

'신문이 매주 월요일자로 발행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176명 58.7%) △모른다(124명 41.3%)로 대답해 과반수에 이르는 학생들이 신문 발행기간과 발행일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한달 기준)'란 질문에 △2회(68명 22.7%) △4회(62명 20.7%) △1회(57명 19%)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3회가 35명 11.7%로 나타났으나 △전혀 안본다도 62명 20.7%에 이르렀다.

독자 성향

신문을 보는 방법은 △죽 훑어본다(119명 39.7%) △관심있는 부분만 본다(89명 29.7%) △꼼꼼히 읽어본다(15명 5%)순으로 나타났다.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면은 △여론면(101명 33.7%) △문화면(86면 28.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면(45% 15.1%) △취재면(37명 12.3%) △기획면(31명 10.3%)순으로 뒤를 이었고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도 △여론면(81명 27%) △문화면(68명 22.7%) △사회면(58명 19.3%) △기획면(47명 15.7%) △취재면(46명 15.3%)순으로 나타나 신문에 대한 독자참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자들은 △회전무대(137명 22.8%)를 가장 즐겨 읽으며 △사설(86명 14.3%)과 △만평(81명 13.5%)도 즐겨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평가

동대신문의 신뢰 정도에 관해서는 △보통이다(198명 66%)가 가장 많았고 △신뢰한다가 73명 24.4% 그리고 △매우 신뢰한다와 △불신한다가 각 2명 0.7% 27명 9%로 집계돼 대체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자들은 동대신문의 영향력에 관해서도 역시 △보통이다(175명 58.3%)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매우 높다(6명 2%) △높다(24명 8%)의 긍적적인 평가 (30명 10%)에 비해 △낮다(78명 26%) △매우 낮다(17명 5.7%)의 부정적 평가(95명 31.7%)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동대신문은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독자들은 대학신문의 특징을 △비판의식(155명 51.7%)으로 생각하는 반면 동대신문의 특징은 △정보전달(109명 36.3%)이라고 대답했다.

(취재부)

파고다외국어학원

人材가 人材를 만든다.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 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27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PAGODA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합니다.
이 지구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오르도록 힘껏 도울것입니다.

영 어

기초영어회화
기초영어
SIDE BY SIDE·FIFTY-FIFTY
A CONVERSATION·LADO·COMMUNICATE

영어, 청취, 어휘/유학, 진학, 취업
TOEFL(L.C)/TOEIC(L.C)/GRAMMAR/Vocabulary
READING/WRITING/GRE/GMAT/AFKN
기초영문법·독해·청취·작문/발음교정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PAGODA→미국 위스콘신 WESLI
2~4개월(1일 5시간교육) 2~4개월(1일 4시간교육)
교육중 입학허가서취득 교육중 미국대학(원)(편)입학

최신영어특강프로그램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12명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교수전원 미국인

INTENSIVE S.L.E. COURSE
1일 2시간 주 5회/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 전원미국인

INTENSIVE ENGLISH COURSE
미국인 교수(석·박사)에 의해 1일 5시간 집중영어 교육
영어의 종합적(회화·문법·독해·작문)능력완성 4달완성
미국대학 공인 프로그램(주 5회 12명 정원)

일 본 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 문법
스크린 일어회화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인 회화 (초급 I · II · III)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출신

독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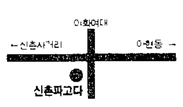
독어강좌
프랑스인 불어강좌
중국인 중국어강좌
스페인어강좌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바大
1일 3시간/1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大 입학

세계 4번째로 남극점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극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본학원장), 홍성택 대원(본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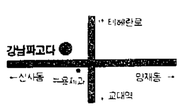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PAGODA

종로 274-4000
종로 파고다공원 앞 흰 빌딩

압구정 3442-4000
압구정역 3번 출구 동호대교 끝



신촌 706-4002
이대 전철역 7번 출구 5m



강남 501-4002
강남 전철역 7번 출구 씨티빌딩

창간 1200호를 맞이해 전붓골만필 필자들의 회고담을 싣는다. 1950년 4월15일 창간이후 46년이 지난 오늘, 동대신문은 1996년 5월 6일자로 12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동대신문과 함께 호흡하며 동악의 역사를 이어간 본사 동인들에게, 학생기자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우리는 천이백번 신문을 만들었지만 천만번의 땀과 피눈물을 쏟아야 했다"

우리는 추억속에 살고 있다

황 명

젊은 시절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우리들처럼 어려운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1950년,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 살아 온 우리들의 친구들은 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더러는 이미 먼 나라로 떠나고, 더러는 아직도 이땅에 살아남아서 이른바 일만 달러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삶이란 참으로 고달프고 질긴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린 한때의 일들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아직도 잊지 못할 많은 사연들은 우리들을 휩싸고 있다.

전쟁이란 한갓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던 '실존주의'의 물결,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그리고 부조리의 아르베르, 까뮈……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때로는 으슥한 필동의 어느 골목 선술집에서, 때로는 다 타버린 명동의 어느 움막집에서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콩나물과 돼비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궁전도 부럽지 않았다. 거기엔 순수무구한 우정이 있었고, 천진난만한 사

전쟁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던
'실존주의'의 물결.

랑이 있었고, 철부지 나름의 철학이 있고, 설익은 우리들의 문학이 있었다.

그때 그 자리의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제가 왕이었다. 제가 읽은 책이 이 세상의 법전이요, 제가 본 영화나 연극이 가장 영원한 고전적 의미였다. 말하자면, 그렇게 저마다 메말라 있었다.

그 무렵 내 주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학과와 영문과 친구들이 많았다.

동국월보시절이 떠오른다. 얼마나 추운 계절이었던가. 이제는 아득히 먼 나라로 떠난 이창대형, 이 친구만큼 다혈질인 사람을 아직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때 우리 학생들의 청을 잘 들어주시던 최봉수선생님. 그리고 따뜻한 국물과 따뜻한 '정종'을 사주시던 백철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소주·막걸리에서 일약 고급스런 정종을 마시게 되는 그 최초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뒤돌아보는 시간은 언제나 아쉽고 멀다. 동국학생시집의 속간을 위해서 그 추운 날 종로 뒷골목 자그만 인쇄소에서 직접 교정을 보고,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할 때의 그 희열은 무엇에 비하랴. 이것은 단순한 희열이 아니다. 적어도 훗날 우리의 자랑인 동국시집을 잇게(續)하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작업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자찬하고 싶다.

추억은 끝없이 아름다운 것, 학창시절, 그 청순한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착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한국문인협회이사장·국문55졸〉

대학신문사상 최초 배포한 호외

윤 청 광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살벌한 판에 정부에서는 장충단 쪽에 느닷없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착공했다.

운동장이 없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던 동국대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고,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당시 중앙도서관 남쪽 장충단에 운동장을 설치하는게 유일한 꿈이었기에, 바로 그 꿈의 자리에 정부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물을 착공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편집부장을 맡고 있던 나는 믿을만한 후배 학생기자 몇명과 함께 밤새워 '동대신문 호외'를 만들었고, 다음날 아침에'호외'가 뿌려지면서 전교생이 데모를 벌였다. 아마도 대학신문역사상 최초의 '호외'였을 것이다. 이 일로 나는 구속직전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지어졌던 건물이 지금은 모교의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후 나는 너무 잦은 교수님들의 휴강사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후배 학생기자 이창우와 함께 교무과에 보관되어있던 휴강통계를 훔쳐내어 동대신문 한페이지에 특집으로 폭

계엄사령관의 망언을 폭로한 이후
신문은 압수되어 화형을 당했고
그 사건으로 나는 동악을 떠나야 했다.

로했다.

— 한 학기 휴강 1천6백20시간!

한학기 내내 단 한번도 강의를 하지 않고도 월급·보너스까지 타가신 H라는 뻔뻔스런 교수의 경우도 꼬집었다.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퇴학위기까지 몰렸지만, 결국 이 보도로 뻔뻔한 그 H교수가 학교를 떠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한뒤, 계엄사령관이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 학장님들을 세워놓고 망언을 일삼았다.

— 똑똑한 교수는 국회의원 해먹고 병신 같은 것들만 대학에 있으니 학생들이 말을 들을게 있냐!

— 개 돼지 같은 놈들. 데모만 하면 싹죽여 버리겠다!

— 이 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저 숲속에 끌고가서 강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자신의 사타구니를 가리키며)법이 있기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칙을 엄하게 고쳐서 데모하는 놈은 모조리 퇴학을 시켜라! 그러면 데모는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 계엄사령관의 망언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동대신문에 폭로했다.

— X장군일행, 공갈협박차 래교(來校)?

신문이 나온 다음날 아침 학교는 벌컥 뒤집혔고, 신문은 모조리 압수되어 지하 보일러실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때 필사적으로 신문을 끄집어 내던 후배학생기자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허나 이 사건으로 나는 동대신문과 동국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게 벌써 30여년 전의 일이구나.

〈방송작가·영문 64졸〉

그대들, 동료를 사랑하라

김 택 근

반 지하의 신문사는 늘 침침했다. 시대상황은 그보다 더욱 암울했다. 신관호선배(당시 동대신문사 총무)가 없었더라면 난 동대신문사 기자가 될 수 없었다. 신선배는 고교 때부터 인연을 맺었기에 소위 '입사 시험'이란 걸 강권했다. 그래서 '빛나는' 신문사 기자가 됐다. 한달 월급은 4,000원. 막걸리는 넉넉하게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3학년때 편집장이 됐다, 그때 만난 이름들. 남상균 장영미 최길동 이원섭 이정 이철호 한만수 안동일 권일영 임익두 권윤옥 권복순 권인옥…. 우리들은 지하왕국에 모여 툭하면 수업을 빼먹고 키득거렸다. 우리는 등교 아닌 '출근'을 했고 하교 아닌 '퇴근'을 했다. 캠퍼스를 짓누르고 있던 살기.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 모여서야 비로소 안도했고 기가 살아났다. 우리는 정말 똘똘 뭉쳤다.

대학이 부끄러움을 탔고, 캠퍼스는 무기력 했고, 우리들 머리는 속절없이 잘려나갔다. 개인의 머리를 자르는 권력. 누구도 떳떳치 못했던 불신의 시대.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고 그걸 사산해야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학생회 성격의 학도호국단 간부 하나

사회구석구석을 핥던 '유신의 혓바닥'
그 고통을 묻을수가 없어
우리는 그걸 서로의 가슴에 묻었다.

가 기사에 불만을 품고 신문사에 달려와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웠다. 그때 선배 하나가 벌떡 일어나 "펜은 칼보다 강하다"며 펜촉으로 그를 찔렀다. 그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찌른 것이었다. 당시엔 무용담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

사회구석구석을 핥던 '유신의 혓바닥'.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도 묻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걸 서로의 가슴에 묻었다. 우리는 형제보다 가까웠다. 모든 갈등을 모아 태우던 지하 공간. 그 순간들을 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은 왜 그리 많았던지 기획하고 기사 쓰고 편집하고.

그때의 동대신문 품격은 장안에서 모두 알아줬었다. 물론 그건 지금은 돌아가신 송혁주간님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분은 우리의 울분과 치기를 절묘하게 품어주시거나 삭혀 주셨다. 우리들 기획의 맹점을 지적하시고 글속의 무지을 깨우쳐 주셨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신문의 품질'에 대해 눈을 떴다.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늘 가만가만 다가오는 봄이며 소리없이 적시는 봄비였다.

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엘 갔다. 그리고 시국선언 유인물을 뿌리던 신문사 후배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신문사 생활을 제하면 학창시절의 '나'는 없는 것 같다. 방학이 되고 모두들 시골로 떠날 땐 서로들 왜그리 짠한 마음이 들었는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그럴까. 지금도 그때의 동지들이 반갑고 신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소식에도 귀를 세운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대들, 동대신문보다 동료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 젊음도.

〈경향신문매거진X팀장·국문 79졸〉

민주화의 전초기지였던 80년대

남 선

80년대 동악은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민주화의 전초기지였다는 생각이 든다. 5·17이후 도심시위는 엄두도 낼 수없던 터라 학우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교정에서 독재정권을 규탄했고 며칠후 신문 한 귀퉁이에 누구누구 집시법위반으로 구속이라는 내용없는 1단 기사와 함께 사라져 갔다. 여기에 어느날 뜸금없이 날라온 영장에 전방오지로 끌려간 학우가 그 얼마인가? 그리고 때때로 최류탄에 쩌들린 강의실에서 전방에 있는 학우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탄하던 그때….

그때가 80년대 초다. 불행한 시절의 아픔은 학교와 교수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의식있다는 평을 받는 교수의 강의실에는 특수직 공무원이 학생인냥 버젓히 강의를 들었고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장학금(?)까지 주어야 했다. 그리고 정각원의 부처님도 사흘이 멀다하고 법당 내부까지 날라온 최류탄에 남산의 맑은 공기맛을 잃어야만 했다. 그리고 불상 주변 나무는 학우들이 올라가 시위를 주도한다는 이유로 가시철망 옷을 입어야 했다. 82년인가… 사학과의 P교수는 나이든 학생(?)을 강의실에서 망신 주었다

군사정권을 힐난하며 시대를 고민했던,
그러나 도서관은 항상 불야성을 이뤘던,
동악의 80년대는 그렇게 흘러갔다.

는 이유로 직장을 바꿔야했으며 학교측은 이들에게 구내에 연구실(?)까지 마련해주었어야 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대학본관 우측문옆이 그들이 84년 2월 28일까지 연구(?)를 했던 본부였다. 그 자리가 동국관이 세워지기전 동악의 모든 곳을 한눈에 조망할수 있었던 명당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의상은 거의 청바지였고 애창곡은 80년대 중반 출정가가 나오기 전까지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시위관련 은어도 많았다. 독재정권을 규탄한 유인물은 피, 시위는 디, 시위를 주도한 학우는 제비, 정보기관원은 짭새라고 부른 기억이 난다. 시위장소에서 유인물 한장 주어 가방에 넣었다가 불심검문에 걸리면 반드시 피를 보아야 했고 형기를 마친 시위주도 학우는 캠퍼스로 반드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헐리고 없지만 후문 골목끝 이층집을 비롯한 꽤 재재한 선술집은 늘 깍두기 안주에 소주를 놓고 군사정권을 힐난하며 시대를 고민하던 교수님들과 학우들로 들끓던 시절, 그렇지만 도서관은 항상 밤늦게까지 불야성을 이뤘던 시절, 동악의 80년대 초는 그렇게 흘러갔고 시간은 학우들을 사회로 내몰았다. 이제 "젊은 놈들이 왜 그리 용기가 없노" 호령하시던 노 교수님들은 뭇을길을 기셨고, 만년 청년이냥하던 이들도 30대중반이 됐다.

그리고 학창시절 가끔 찾아오는 70년대 선배들이 자신들은 불행한 세대였다고 자탄만하면 기성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몰아쳤던 기억을 하면서도 이제는 X세대라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학창시절은 억울했다고 강변한다. 동악 90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기막힌 사연이 있듯이 80년대도 그렇게 시작됐고 마무리 됐다.

〈불교방송기자·영문 87졸〉

쉽고 빠르게 팍팍 들어온다!
도해를 겸한 字源 풀이 사전
秘法漢字 (비법한자)
權智庸·姜忠熙 共著/鄭周永 監修
지금 비법을 전수받으세요!
1. 머리에 쏙쏙 들어 온다
자원을 통해 漢字의 원래 뜻과 그 글자의 유래와 발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漢字를 빠르게 이해하게 하고 머리속에 쏙쏙 심어 줍니다.
2. 漢字의 실력을 10배 증가시킨다
한 글자를 알면 두 자, 세 자, 네 자… 등 고리처럼 연결돼 있는 漢字를 연상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약자와 동자, 속자 그리고 漢字 단어와 숙어는 물론 고대의 신앙, 언어, 풍속 등을 익힐 수 있는 일석십조(一石十鳥)의 책입니다.
3. 글씨 교본이 따로 없다
글자 한 자 한 자마다 운필법에 의한 漢字 쓰는 법과 필순에 의한 쓰기 공부는 까다로운 漢字라도 바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4. 없는 게 없이 꽉 차 있다
부록으로 고사 숙어 풀이, 사자소학, 추구집, 천자문, 대법원 선정 人名用 한자, 삼강오륜, 주자십회, 육십갑자 등 그외 漢字에 관한 모든 상식을 갖춘 한자의 백과사전입니다.

• 大(4×6배판) 12,000원 • 2색도 인쇄
• 中(크라운판) 8,000원 • 396쪽
• 小(국반판) 5,000원
각종 시험 완전 정복 한자 상식 총집합
중판! 또 중판!
漢字登龍門
다양한 문제 형식을 도입하여 수험생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어떤 형태의 출제 경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생활 한자책.
• 정주영 편저 • 312쪽 • 6,000원
학일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196번지 Tel:762-9348, 763-6767 Fax:765-1331

책속의 열린 어학원
열린영어
이종훈/저
지금 직접 열어 보세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광고, 영화 포스터, 사진, 벽화, 조각품을 포함한 1,000점이 넘는 그림과 '터미네이터'에서 '어린 왕자'에 이르기까지 시나리오, 희곡, 소설, 영자 신문 기사 등 모든 장르를 망라하여 예문으로 취했습니다.
▸눈·귀·입 모두 열립니다
열나게 외우고, 열심히 쓰고, 열 번도 넘게 찍어 봤지만 안 되는 영어, 이제 〈열린 영어〉가 해결해 드립니다.
▸끼가 넘칩니다
숙어와 단어에 얽힌 유래와 어원을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익히니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이 책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감각이 생깁니다
우리의 사고력과 상상력이 배어 있는 우리 문화 속의 상징물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가 보다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 2색도 인쇄 • 544쪽 • 10,000원
접두사·접미사·어근을 활용한
영단어 스피드 암기 5000
접두사를 통해 의미를 짐작하게 하고, 접미사를 통해 품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고, 단어의 중심인 어근의 어원을 풀이하여, 영단어의 구성과 의미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 2색도 인쇄 • 303쪽 • 7,000원
학일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196번지 Tel : 762-9348, 764-7756 Fax : 765-1331

보람있는 대학생활의 길잡이
캠퍼스사냥

元隆喜 著
신국판/ 436면
반양장/ 8,000원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대 인생의 좌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다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의준비는 어떻게 하고, 레포트(report)는 어떻게 쓰며,
동아리활동은 어떻게 해야 후회없는 시간이 될까?
수 많은 책, 전공도서와 교양도서, 영화, 음악, 세미나…
몸은 하나인데 보아야 할 것들, 읽어야 할 것들,
참석해야 할 것들, 써야 할 것들…, 무슨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 지….
여기 현직 교수가 후회없이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내는
비법을 소리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대가 보다 멋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그 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現代國際關係學
金喜午 著
값 17,000원
교사 임용고시 및 대학원입학시험대비
英語學硏究(해설 및 문제수록)
이현구 著
값 15,000원
철학사상 탐구선양회 편
東西思想의 源流
값 9,500원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653-41 白山出版社 발행
TEL : 914-1621/ 917-6240 FAX : 912-4438

◇나는 동국을 이렇게 바라본다

Students Are The University!

—존 쉐리단(영문학 교수)

"Good afternoon"이란 인사로 John Sheridan(영문학)교수는 기자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구렛나루 하얀 턱수염 얼룩 넥타이에 빨간양말. 그리고 환한 미소의 그는 한국의 여느 교수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사뭇 든다. 그는 교내에서 몇 안되지만 익숙한 외모의 미국인 교수로 교정을 거닐며 누구나 한두어번 이상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기자는 지난 1일 그의 연구실에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어 동국대에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노력하는 Sheridan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학교에 처음 왔을때 친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동국대가 불교종립학교인데서 찾을 수 있었죠." 그만큼 그는 개교 90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불교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같이 한 것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다고 한다. 또 불교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불교가 전통문화와 상업주의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처럼 동국도 같은 자세로 다시 새로이 되새김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의 생활 기간이 긴탓에 미국 학생들과 한국학생들과의 차이도 보인다고 한다.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곳의 대학생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3 입시지옥 경험 때문이겠죠? 대학에서의 자유가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전념한 댓가로 받은 '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죠"

그는 이어 "미국은 고등학교때 스포츠, 레저 등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오히려 대학교때 공부하는 것에 지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라며 아쉬워 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자유로운 생활은 좋지만 학생들이 출석하는만큼 수업에서도 열의를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더 당부한 것이 있다.

"Students Are Th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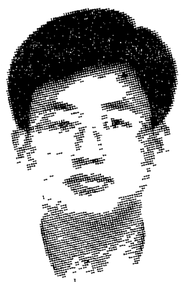
동국대를 상징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학생들이라며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 대학교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달려있다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어린, 짧지만 굵은 문장인 셈이다.

1994년 8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비록 만2년도 안돼지만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넘치는 Sheridan교수는 기사 마지막 부분에 "Thank you"란 말을 넣어주길 당부했다.

이것은 동국 90주년의 역사에의 축하 마음과 동국을 알게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이 아닐까? 〈한상용 기자〉

옛 명성을 되찾아야죠

—이창윤씨(본교 출입기자)



기자들 눈에 비친 동국 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60,70년대까지만 해도 잘나갔었는데…. 이번 개교 90 주년을 계기로 옛 명성을 되찾아야죠" 현재 우리학교의 위상을 묻는 질문에 조금은 안타까워하는 듯한 본교출입기자 '법보 신문' 이창윤 씨.

비가 오는데도 땀을 흘리며 "올라올 때마다 살이 다 빠지는 것 같아"라며 고지 점령에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본교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다르다. 뜻밖에도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87학번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모교를 자주 찾는 이른바 '동국맨' 기자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기자로서 바라보는 동국발전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자긍심'이다. "사회에 나가면 자신이 동국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동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라며 본교 동문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 갖기를 강조한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바로 도약의 원동력이라며. 그러면서 자신은 어디에서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떳떳이 밝힌다고 웃으며 덧붙인다.

불교계 기자이기에 조계종 재단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학교가 종립대학이기에 교계 인재양성에 힘써야 함을 얘기하면서도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는다. "조계종의 가장 큰 불사는 '역경, 도제 양성, 포교'에 있어요. 이 3대 역점 사업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종립대학인 본교의 발전은 조계종의 발전과 연결이 됩니다" 라며 재단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어 그는 재학생들에게도 한마디한다.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어렵지만 쉬운 진리를 실천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다. "방학중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으면…" 하는데 모두 선배로서의 당연한 욕심이랄까.

또 '승가'라는 말은 화합대중의 뜻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그는 한편으로 "솔직히 사회에서 동국대학교의 이미지는 썩 좋은 편이 아닌것 같아요. 심지어 불자들도 동국대학교에 대해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라며 이미지 개선에도 관심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다.

처음 본교 출입처를 맡게 되었을 때 '고향집에 온 것같이 편한 느낌'이었다는 동문 기자인 그. 이창윤 기자처럼만 우리 모두가 모교를 사랑한다면 다음 개교 1백주년에는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영규 기자〉

낭만과 여유 넘치는 멋이 좋아

—김현숙씨(하얀집 아주머니)

White House. 백악관이 아니다. 정신병원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학교 가까이에 접해있는 '하얀 집'이라는 일반 음식점이다. '하얀 집'은 학교 주변에서 동국대와 80년대를 같이한 몇 안되는 곳 중 하나로 역사가 깊은 곳이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골목골목에 쌓여가는 하얀 가루들, 참기 어려운 냄새… 그땐 학생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 잘은 몰랐어도 왠지 시원한 기분을 느끼곤 했었는데…" 40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는 '하얀 집' 주인 아주머니 김현숙씨의 말이다. 아직 5시라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다. "그때는 낭만과 여유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끔씩 돈 안내고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도망가는 학생들을 일부러 그냥 보내준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일부러 속아준 것도 모르고 밖에서 장난에 성공해 좋아하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워 했어요." 요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얀 집'에는 다른 음식점이나 술집과는 달리 화려한 인테리어나 조명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노랗게 바랜 벽에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을 뿐이다. 조금 특이하다면 다른 음식점에서는 볼 수 없는 '조국과 청춘'의 홍보용 포스터 몇장이 붙어 있다는 것 정도다. "학교 주변이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화려한 술집도 많이 늘고… 이 곳도 좀 좋게 고쳐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대로 보존하는게 어떠냐는 말을 듣고 그것도 괜찮을꺼라 생각했죠.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살짝 번지는 미소속에 조금은 씁쓸한 웃음이 섞인다.

'하얀 집'엔 그밖에도 선배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전통도 있다. 돈이 없어 맡긴 학생증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찾으려 오면 꽁꽁 얼어있는 학생증을 꺼내 망치로 얼음을 깨고 준다는 것. 알고보니 학생증을 맡기고 찾으러 오지 않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말로 번진 것이란다. 이제 손님이 제법 늘었다. "학생들에게 그동안 솔직히 정도 많이 들었죠. 술 마시러 온 학생이 들고 있는 동대신문을 뺏어 읽을 정도로 동국대와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고 길에 지나가다 동국대 얘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가게 돼요. 그런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이라니 저도 기쁩니다." 술마시려는 학생들이 떼지어 들어온다. 일어서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동문이었으면 하고 바랠때가 많다'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난 속으로 조용히 말해본다. 이미 당신은 개교 90주년을 맞는 자랑스런 동국대학교의 동문 중 한 사람이라고… 〈김상만 기자〉

◇지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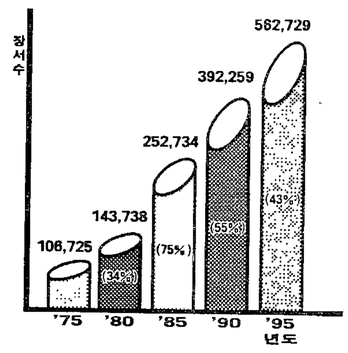
동국 90년을 짚어본다

〈75년 이후 도서관 장서 변화〉

(96. 2. 29 현재)

	1975	1980	1985	1990	1995
장서수	106,725	143,738	252,734	392,259	562,727
5년간 증가장서		37,013	108,996	139,525	170,468
도서구입비(천원)	16,256	67,836	229,935	209,990	279,617

*제공:도서관



*( )안은 5년간 장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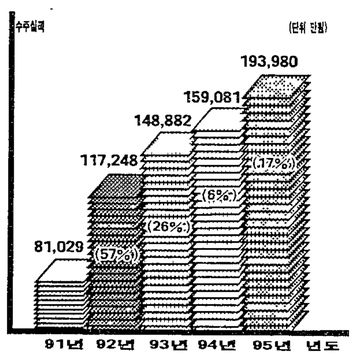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실적 현황〉

(단위:만원)

	1991	1992	1993	1994	1995
서울	79,629 (39)	108,648 (50)	141,950 (63)	129,149 (74)	163,791 (70)
경주	1,400 (3)	8,600 (11)	6,932 (10)	29,943 (18)	30,188 (16)
합계	81,029 (42)	117,248 (61)	148,882 (73)	159,091 (92)	193,980 (86)

*자료:교사편찬실(90주년사 발간 준비자료)

( )은 주 건수



*( )안은 매년 수주실적 증가율

〈1995 대학별 컴퓨터실 현황 비교〉

대학명	기준정원	교육용컴퓨터 보유수	컴퓨터 1대당 학생수
건국대	12,757	1,125	11.3
경희대	10,250	10,844	9.5
국민대	8,460	6,976	12.2
동국대	17,130	1,318	13.0
서울대	20,120	1,049	19.2
숙명여대	7,260	340	21.4
전남대	21,242	213	99.7
포항공대	2,570	908	2.8

*자료:교육백서(각 대학국회제출자료기준)

〈정리=고지은 기자〉

◇지명, 건물 명칭 및 유래

동국역사 밝히고 건학이념 구현을 표상

본교가 자리한 곳은 옛부터 남산골 샌님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붓고을이라하여 필동(筆洞)이라 불리웠다. 남산의 수려한 정기와 옛문인들의 기상을 이어받은 터에 민족사학인 본교가 들어선 것이다.

모든 사물이 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을 하나씩은 갖고 있듯이 본교도 90년의 장구한 역사가 건물의 이름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건물의 명칭과 이름을 알아보고 동국의 90년을 느껴보자.

〈서울캠퍼스〉

명진관(明進館) 본래 석조관이었던것을 바꿨다.개명진보(開明進步)의 뜻으로 개교했던 최초의 교명인 '명진학교'에서 이름을 차용함.

대학본관(大學本館) 기능적 성격을 중요시해 이름붙여졌다.

혜화관(惠化館) 본교의 전신인 혜화전문의 교명을 차용했다.불교적인 부드러운 어감을 갖고있다.

금강관(金剛館) 운동부선수들의 합숙소로, 금강은 강건,불변,용맹,정진등을 상징한다.운동부 선수들이 금강역사들처럼 되길 기원하며 명명됐다.

원흥관(元興館) 1,2,3공학관을 원흥관으로 통일시켜 개명했다.원흥은 원효사상의 현대적 부흥을 의미한 원흥사의 절이름으로, 본교가 최초로 개교했던 곳이다.

학림관(學林館) 사대건물을 학림관으로 개명함, 학림은 본교의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의 교명에서 차용한것으로 근대교사에 있어서 학림관은 교육기관을 뜻하는 것이다.

다향관(茶香館) 복지불교용어로 공양이라는 말이 있는바 공양의 내용으로 보아 향과 다가 중시되므로 동회관의 기능을 감안 다향관으로 결정됐다.

계산(桂山)관·계산고시학사 본교 동문인 박계산(행정대학원77졸)씨가 기증한 건물로 그의뜻을 기리기위해 이름을따 명명함.

정각원(正覺院) 정각원의 전신인 숭정전(지방유형문화재20호)을 이전 복원한것이다.

정각이란 "바른깨달음"을 일컫는 불교용어로써 본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본교의 심신수련도량이다.

동악로(東岳路) 조선 선조때의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선생의 문명을 기린 동악선생시단이 사범대앞에있는데 이곳은 동악선생이 시를 읊던곳이다. 그래서 이곳부터 본관에 이르는 길을 동악로라한다.

목멱골(木覓골) 본교를 감싸고 우뚝 솟은 남산을 목멱산(木覓山)이라고도 불리웠으며,목멱골은 '남산의 마을'이란 의미를 지닌다. 〈최승일 기자〉

〈경주캠퍼스〉

온방골(溫房) 본교를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미산은 천도교와 사천교의 모체가 되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전파했던 최제우의 용담정이 묻혀있는 곳이며 이곳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라 하여 온방골이라 부르고 있다.

원효관(元曉館) 86년, 인문사회학관이었던 것이 원효관으로 변경되었다. 신라시대의 유명한 고승인 원효대사의 원효사상을 이어 받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진흥관(振興館) 87년 준공된 이 건물은 신라의 불교진흥에 힘썼던 진흥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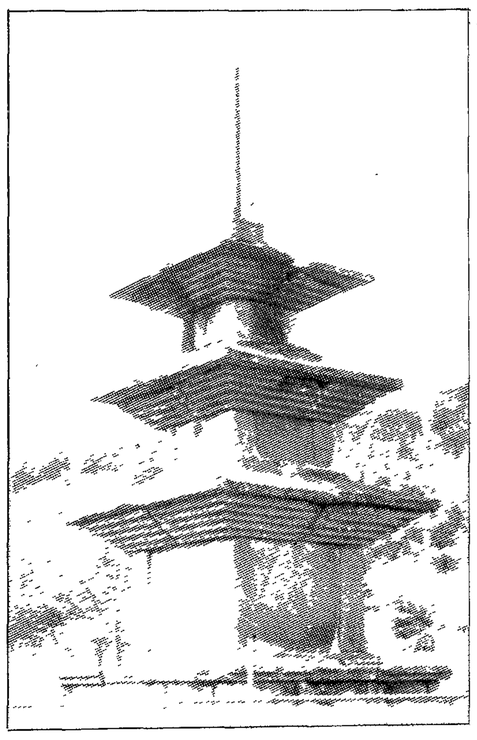
문무관(文武館) 85년 준공된 이 건물은 죽어서도 호국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고 한 신라 문무왕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문과 무를 함께 정진하자는 뜻에서 명명되었다.

녹야원(鹿野苑) 사슴이 뛰노는 동산이란 뜻으로 부처님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교진여등 다섯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한 곳이다.

룸비니(Lumbini 藍毘尼) 동산 부처님의 탄생지로 카필국의 왕비인 마야부인이 산월이 되어 친정인 데바다성으로 가던 도중 이 동산에서 부처님을 낳았다고 한다. 〈이성웅 기자〉

감은사탑에서 국보급 사리장치 발견

동·서탑 서로 짝을 이루는 신라 최고의 사리기



◇동·서 쌍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감은사탑. 사진은 37년전 해체 복원된 서탑의 모습.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그는 감은사 답사기를 편집자 조건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원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쓰고싶다고 말한다.

웅장하고 위대한 힘을 지닌듯하며 쪽빠진 몸매를 자랑하는 감은사탑.

감은사탑은 동서 쌍탑으로서 지난달 25일, 37년전 서탑의 해체복원에 이어 동탑해체복원을 시작했다. 관계자들은 서탑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탑에서도 굉장한 사리장치가 발견될 것을 숨죽이며 기다리던 중 결국 국보급 사리장치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부식이 심한 관계로 드러내서 볼수는 없었다.

사리장치는 깊이 30㎝, 가로세로 60~36㎝ 직사각형 사리공인에 금동으로 된 전각형 금동사리외함을 장치하고 이안에 또하나의 보탑형 사리내함을, 또 이속에 수정사리병을 안치하여 사리를 안장한 3중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이날 본교 문명대(불교미술학)교수를 비롯한 문화재관리국에서 발표했다. 사리장치는 외감의 지붕이 자갈에 눌려 있으나 완벽하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유구한 기간동안…

사리외함은 부조로 된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는데 건장하고 당당한 체구, 정교한 갑옷 형태는 세련된 극사실주의 조각이라고 한다. 또한 구름무늬의 문양대가 네모서리쪽에 붙여져 있으며 이사이 봉황을 엇갈리게 4면에 배치했다. 그리고 내함은 뚜껑틈새로 보이는 것으로 추정, 금동빛이 뚜렷히 남아있다고 한다.

현재 사리장치를 완전히 드러내서 보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7년전 1959년에 이미 해체복원된 서탑에서 또한 사리장치가 발견됐는데 임금이 타는 수레모양의 청동사리함이었다. 정교한 연화문반침에 57~29.5㎝, 깊이 29.1㎝ 크기의 함에 모서리에는 팔부신장이 새겨져있고 좌우에 귀신얼굴의 고리가 있다. 이 사리함은 보물 366호로 지정,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감은사터는 경주 양북면 용냥리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할 수 있는 감포가도에 있다. 문무왕릉, 이길대, 감은사터가 있는 이곳은 신라통일을 이룬 문무왕에 관한 사적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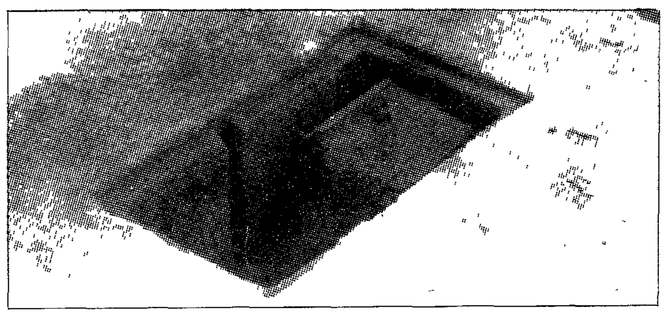
통일신라 문무왕은 부처의 힘을 빌어 왜구를 막겠다는 의지로 동해 바닷가에 절을 짓게된다. 그러나 완성을 보지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아들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받아 만든 절이 바로 감은사이다. 현재 그 절은 사지로 존재하며 사적 제31호로 지정돼 있다. 사찰내의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탑 감은사탑은 삼층탑으로 화강암 상하 2층, 기단위에 3층으로 축조되어 찰주까지 전체높이 13m이며 우리나라 삼층석탑규모중 가장 크다. 신문왕 2년, 681년에 완성된 이 탑은 모든 목조적인 세부가 정리되어 단순한 모양으로 통일신라초기작품의 전형이며 현재 국보112호로 지정돼 있다.

이 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는 동서의 것 서로가 짝을 이루면서 서로 대비되는 최고의 걸작 사리기로써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신라의 사리기는 신기의 솜씨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명한 것이다. 동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의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정교하게 장치한 3층 사리장치로써 화려하며 세련된 사리기의 형태들로 최고의 아름다운 사리기이며, 무늬나 조각상에서 아름답고 세련된 것이어서 당대최고의 사실적 미양식을 나타낸다. 또한 금색 찬란한 금동사리기는 열반의 진리를 상징하는 사리와 함께 영원불변의 불교사상의 핵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삼국통일의 결정책임을 알려주는 역사적의의를 간직하고 있어 통일의 의지를 크게 신앙한다.

앞으로 사리장치를 들어내게되면 우리는 또 한번 지금의 어느 작품보다 세련된 옛 얼의 작품에 놀라움을 금치못할 것이다.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장엄구여…

〈박묘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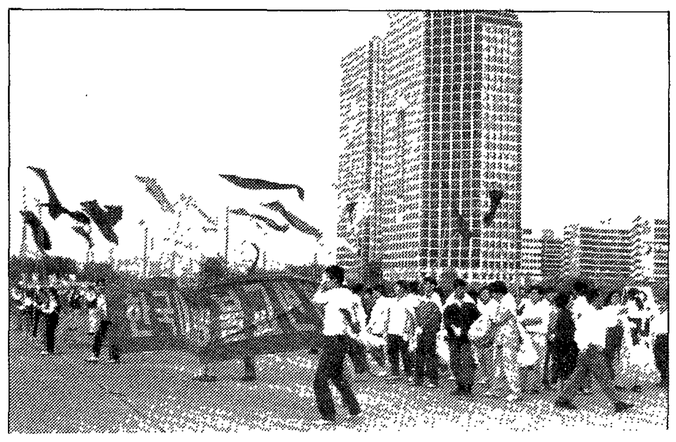


◇깊이 30㎝, 가로·세로 60×36㎝의 직사각형 사리공인에 들어있는 사천왕상이 새겨진 사리외함의 모습.

동아리 문화읽기 일곱

서울캠 사회분과

사회운동·사회참여를 이끌어 가는 동아리



이번 동아리 문화읽기 편으로 서울캠 사회분과를 찾아가 보았다. 사회분과에는 불교학생회, 호우회, KUSA-D, M.R.A, UNSA 등이 속해 있다.

불교학생회 연합동아리 형태의 불교학생회는 매일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인 예불을 드리고 매주 수요일 마다 법회를 열어 불심을 높이고 마음을 닦는다. 또한 불교학생회는 매년 개최되는 연등축제에 직접 연등을 손수 만들어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직접 만드는 법을 강습해 주기도 한다.

호우회 호우회는 국가 유공자들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동아리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자긍심 향상과 그들의 이익대변을 위해 창립되었다는 이 동아리는 국가 유공자녀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소년소녀 가장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호우회가 거의 모든 학교에 존재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타 대학의 호우회 중엔 꼭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 건국대와 동덕여대 등이 그러하다.

KUSA-D KUSA-D(Korean Unesco Students Association Dongguk-univ)는 80여개학교가 이어진 KUSA 중 전국에서 2번째로 창립된 전통이 긴 연합동아리다.

4.19 학생운동 후 새로운 학생운동의 개념으로 일어난 새물결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KUSA는 '혼자모이면 독서, 둘이 모이면 대화, 셋이 모이면 합창, 넷이 모이면 운동'이라는 새물결운동 강령도 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제주도, 그리고 다시 서울을 잇는 전국 순례 대행진, 산골어린이 초청 방송국 견학, 중앙일보 주최의 자원봉사대축제 등의 환경운동과 봉사활동을 그 주축으로 하고 있다.

M·R·A M·R·A는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이라는 4개의 지침을 가진 동국도덕재무장회 동아리다. 단순한 도덕운동이나 종교운동을 벗어나 근본적 인간성을 되찾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인간혁명을 이룩하자는 취지로 창립된 동아리이다.

UNSA UNSA(United Nations Student Association)는 인류의 기본권, 인간 존엄의 가치, 남녀평등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국제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창설된 동아리로써 전국 26개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다.

매년 11월에서 12월에 정기적으로 그 해 하나의 대표적인 국제적 사건을 골라 각 나라별의 관점에서 모의 UN총회를 개최해 토론을 하며 매주 목요일엔 특정 나라에 대해 조사와 발표, 토론을 한다. 또한 여름마다 외무부 후원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들 사회분과 동아리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불교학생회는 불교이념, 호우회는 국가유공자녀들의 자긍심 고취, KUSA는 새물결운동, M.R.A는 도덕재무장운동, UNSA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그들의 목표와 성격이 모호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변화 역시 그들에게 맞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봉사동아리의 성격과 사회동아리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봉사를 통한 사회운동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김상만 기자〉

달하나 천강에

징고이즘적 지역주의

지난 15대 총선은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시켜 주었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후보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듯하고, 지역감정은 표를 모으는 원동력의 역할을 했다. 이제 이 나라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은 자기 고향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징고이즘(Jingoism)에 까지 이르렀다는 느낌이다.

더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통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란 그저 사치에 불과하다. 오직 지역주의와 지역감정만이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다. 여당의 실정도 정치지도자의 오만함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 자체가 무의미 해졌다. 정치지도자는 깃발을 꽂고 그저 "바이 징고"(by jingo)만을 외치며 독려하기만 하면 된다.

이같은 징고이즘적 지역주의는 지리적 격리에서 생긴 것이거나 역사적 유산도 아니다. 애향심의 결과나 특정지역의 한(恨)이 표출된 것은 더구나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 암울했던 독재정치의 산물이자 장기집권이 가져온 정치적 유물이다. 독재자들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 보다도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이 필요했다.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그 지역 출신 야당정치인의 존재는 집권자들로 하여금 "전라도 죽이기"의 필요성을 실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도에서 일어난 반독재투쟁과 민주화운동은 "성질이 더럽고 불만 투성이이고 배타적인 전라도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에 불과했다. 그들은 정치적인 속죄양(scapegoat)이 되어야 했다. 독재자들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을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역감정이나 부추기는 상종할 수 없는 한 나라에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유별난 인간들이 된 것이다. 전라도 대 반(反)전라도의 구도는 독재자와 집권자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져 왔고, 여전히 우리 정치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 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해 90%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던지는지를 이해하려 해야 한다. 그 표면적인 결과만을 탓하기에 앞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들은 결코 지역감정의 화신도 아니고 지역주의에 안달이·난 사람들도 아니다.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는 본질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로인해 혜택과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정치적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다. 계속해서 독재와 정치적 실정을 지역주의에 얽매여 용인하는 한 지역감정은 치유될 수 없고 지역주의는 타파될 수 없다.

김 희 오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문화단신

◇달빛 멜로디…극작가 헤롤드 핀터의 'The Dumb Waiter'를 현대 한국을 무대로 새롭게 번역·각색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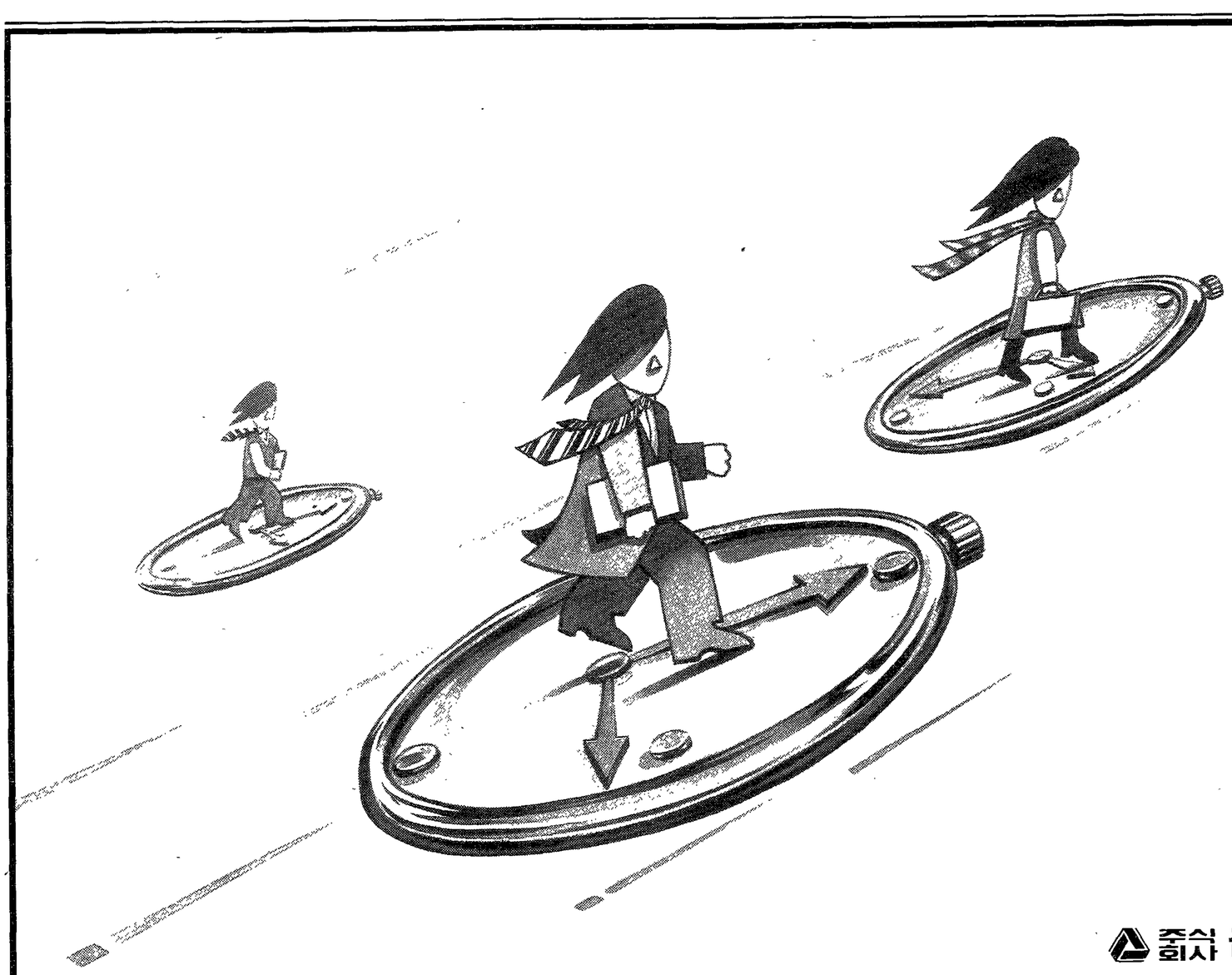
비정한 도시에서 열심히 살려는 두명의 살인청부업자의 만남이 주내용인 갱스터 드라마로 이성열씨가 연출을 맡고 장두이, 이영석씨가 출연한다.

오는 10일부터 6월10일까지. 대학로 은행나무 극장.

◇늙은 도둑 이야기…관객의 높은 호응도로 오는 19일까지 연장공연에 들어간다.

이상우 작·연출로 극단 차이무가 준비했으며 명계남, 박광정, 유오성씨가 출연한다.

줄거리는 형무소에서 갓 출감한 두명의 늙은 도둑이 현대미술관에서 돈을 훔치다 현금분배와 자존심 싸움으로 다툰다는 코미디 연극이다. 동숭아트센타 소극장.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쉼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주식회사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비대위 정·부회장에 대한 청문회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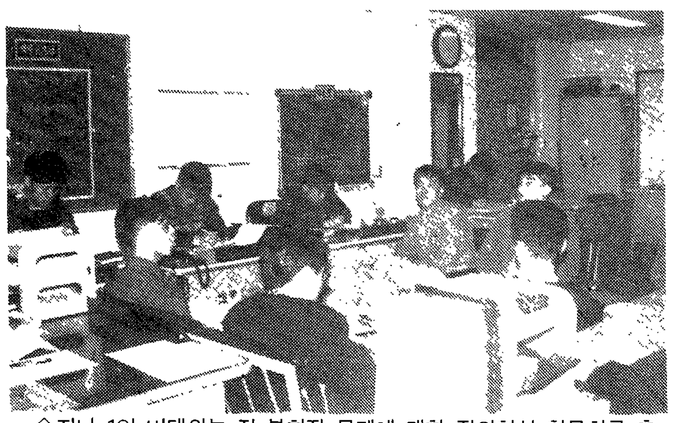
총대 학생수첩 특별감사 실시

자보문건에 나타난 총학생회장(장재봉·사복4 이하 회장)과 부총학생회장(김석종·산안공4 이하 부회장)의 분열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장재봉·사복4 이하 중앙운위)에서 인정한 기구이며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비대위는 문제성 있는 자보들을 수거 했으며, 이와 관련된 자보의 부착금지를 결정하는 한편,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총학수첩과 법정대수첩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특감)를 실시했으며, 회장과 부회장측에서 나온 자보문건을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이날 행정학과 학생회장의 수첩에 대한 보충자료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총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수첩특감 내용을 요약하면 △견적서가 잘못됐다는 부분 △중앙운위의 검증없이 수첩을 제작한 점 △대학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점 등이었다.



◇지난 1일 비대위는 정·부회장 문제에 대한 질의형식 청문회를 총대의원회에서 가졌다.

또한 27일 실시한 법정대수첩과 관련된 법정대 특감 내용을 요약하면 △법정대는 업체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점 △덤핑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수첩을 제작한 점 △업체측의 도덕성이 문제시 됐다는 점 △수첩문제가 회장과 부회장간의 다툼에 원인제공을 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등이다.

총대는 이번 수첩대에 관한 총학측과 법정대측의 특감보고를 오늘(6일)이후 자보로 통보한다.

비대위는 특감이후 이 사건에 대해 사후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대안으로 첫째, 화해할 경우 중재안과 사과문을 공개한다. 둘째, 화해되지 않으면 비대위를 해체하고 중앙운위에서 해결하며, 결과는 이후 회장과 부회장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장과 부회장은 비대위측 입장을 따르는 데 동의하고 지난 1일 총대의원회에서 질의형식의 청문회를 가졌다.

청문회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학내에 붙여진 자보문구의 진위에 초점 맞추어졌다.

청문회 내용을 요약하면 △탄핵서명운동에 대해 회장은 이틀후에 중지하기로 하였으나 부회장은 계속 묵인했다는 점 △부회장의 30여일 직무유기는 근거없은 내용임 △수첩제작에 서로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등이다.

현재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회의 최고간부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중이다.

비대위 위원장 전창훈군은 "서로가 화해하고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나 화해가 성사되지 않을시 비대위 해체와 함께 중앙운위에서 학생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90주년 기념사업을 진단한다

기념 사업 경주캠 함께 추진해야

구성원 전체 인식 전환 필요

본교는 올해가 개교 90주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행사속에서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어 준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9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기획한 사업을 살펴보면 1학기 22행사, 2학기 11행사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중 경주캠퍼스와 관련된 행사는 △1학기-4·19기념 등반대회, 경주남산살리기 운동 △2학기-국악 대음악제, 비젼! 동국 100년 후원의 밤등에 불과하며 등반대회는 연례행사이고 남산살리기운동의 경우는 지난 1일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1학기 경주캠의 행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와 같은 9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경주캠퍼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경주캠 구성원의 인식부족이다.

경주캠도 9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캠만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남산살리기운동은 행사주관교수가 바뀌면서 결국 경실련이 행사준비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부총장을 비롯한 책임선의 충분한 공유가 안되어 지난1일 취소되었다.

다음으로 경주캠 자체로 기획이 가능한 행사가 서울 중심으로만 기획된 점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작되어 배포한 홍보책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학기 기념법회, 봉축연등 점등식 등은 정기적 행사임에도 제외되어 있고, 중국민속품전시회 및 건축·토목전의 경우 학과가 주관, 주최로 되어 있어 경주캠 각학과 행사를 묶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행사 주최의 대부분이 연구소 및 연구원임을 감안할 때 경주캠내 연구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번 행사의 목적이 진정한 만남과 축제의 장을 만들어 동국가족 모두가 하나임을 알리는 것임을 인식하여 남은 행사를 준비해 나가야 겠다.

〈이현주 기자〉

총여 28일 인성·적성검사

취업과 후원 접수 오늘부터

총여학생회(회장=박유진·철4 이하총여)는 오는 28일 진흥관 세미나실(B202)에서 오후 5시30분 모의 인성·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취업과의 후원으로 치뤄진 이번 검사의 접수는 오늘(6일)부터 27일까지 백상탑앞 또는 도서관앞에서 받으며 접수비는 5천원이다.

인성·적성검사와 관련해 총여측은 "검사결과는 일주일 뒤에 개별 통지되며 남녀구분없이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9일 여성문제 연구모임은 '생활속의 성차별'이라는 주제아래 소제목인 '딸이라 죄송해요'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연구모임 평가에 대해 총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여성모임 결과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여학우뿐만 아니라 남학우에게도 많았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커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총장 '대학과 지역' 인터뷰

경주캠 종합평가 연기도 가능

김갑주부총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 경주신문사와의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학과 지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한편, 대학종합평가의 연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총장은 올해는 교육개혁실천의 해로서 불교 건학이념과 학교특성 교육강화에 주력할 것이고 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대학내 특화된 연구소를 두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체계의 경우 관광정보센터를 기치로 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는 대학원 중심교육이 아닌 교육중심의 대학임을 강조하며 현재 등록금 차등제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학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캠이 먼저 실시하게 되어 투자부분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년 연기하여 집중 투자할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부총장은 현재 있는 단과대 증설은 계획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특수대학원을 부각시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96 임석 대동제 개최

'이전까지와는 다른 희망찾기'

제13대 총학생회(회장=장재봉·사복4 이하 총학)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각 단대및 자치기구와 연계해 '96임석대동제'를 실시한다.

이번 대동제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희망찾기'라는 기치아래 소비향락적으로 흘러가는 대동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로 만들어 가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대동제때의 건물장소를 살펴보면 △주점 24개(학생회관~체육관 단 3개는 헌혈증서를 가장 많이 모은 학과에 우선배정-막걸리만 판매가능) △상가 5개(학생회관~녹야원-유동적) △분식 30개(도서관 앞) △놀이거리 및 문화거리(녹야원과 도서관사이)등이다.

또한, 총학은 지난 3일까지 주막·먹거리·상점 신청서를 받은 결과 △상점-25개학과 △상가-6개학과 △분식-12개학과(동아리는 현재 신청받는 중)가 마감됐으며 추첨은 오늘(6일) 총학생회실에서 실시한다.

문화부 연석회의를 통해 한 관계자는 "예전과는 달리 동문회는 추첨에서 제외시켰고 주점도 각 단대별로 학과에 비례 최소한 1개이상씩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가 주점을 포기한 대신 분식의 1/2의 선택권을 가져가 동아리 연계에 강화를 두도록 했다.

한편, 행사일정을 살펴보면(시간, 장소순) 14일 △전야제(오후 6시, 녹야원) 15일 △개막선포(오전 10시, 교내사거리) △언론협의회 초청강연회(오전 12시, 녹야원 가안) △꽃다지 공연(오후 5시 ,체육관) △DKBS임석가요제(오후 8시, 녹야원) 16일 △의대 니기쉬타 공연(오전 12시, 녹야원) △동아리 해방제, 고전극 연구회 탈패공연, 우금치 공연(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녹야원또는 교내사거리-유동적) △강철사랑공연(오후 6시, 녹야원) △상경인의 밤(오후 8시, 문무관) 17일 △전통혼례식 (오후 1시, 녹야원) △백상연(오후 5시 문무관) △대동놀이 한마당(오후 9시, 교내사거리-유동적)등이다.

상대평가 협조공문 발송

신입생 F학점 성적표 기재

교무과(과장=조원생)지난 23일 성적 상대평가와 관련해 전공주임교수 및 해당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교등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상대평가 대상교과목과 대상자를 살펴보면 96학년도 1학기는 1학년 개설교과목의 수강생중 96학년도 신입생에 한하며, 2학기에는 금년도 개정된 신교과 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수강인원이 10명미만인 교과목은 제외된다.

한편, 96학년도 이후 입학생에게는 F학점이 통지표와 성적표에 기재되지만, 96학년도 이전 학생들에게는 종전대로 통지표에만 기재된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번 상대평가에 대한 사항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교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F학점 기재에 대해서는 "신입생들이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으로 시행됐다"라고 덧붙였다.

시선집중 예정된 승리(?)

◇인문인 대동제임에도 불구 학부제로 인해 신입생들의 참석률이 적어 체육대회에선 학과체제인 사회체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우승과 준우승을 했다. 〈조인선 기자〉

점등식 교내일원 순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인 점등식이 오는 9일 오후 7시에 교내일원에서 정각원(원장=이도업·불교학)주관, 불교도연합회(회장=전창훈·불교4, 공성규·불교4, 문도수·불교4)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악과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하여 △개회사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헌화 △봉축사 △장엄등점화 △발원문 △탑돌이 및 제등행렬(녹야원석탑→원효관→상경대→도서관→동대병원→녹야원) △축원 △사홍서원 △폐회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기 재적생 1만1백여명

96학년도 전기재적생수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총 1만 1백 91명으로 집계됐다.

집계된 전기 재적생수는 △재학생-7천 6백 35명 △휴학생-2천 5백 55명 △제적자-2백 30명등이다.

또한, 제적 사유를 살펴보면 △미등록자-21명 △휴학만료-55명 △자퇴-1백 41명 △학사징계-5명등이다.

훼불예방 비상근무

훼불사고 방지목적의 일환인 교직원 비상근무가 오는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비상근무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직원 2인이 1조가 되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각 건물을 순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 시기에 지난번 만자 훼손사건과 같은 훼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의도"라고 밝혔다.

국제관계 심포지움

법정대(학장=김선정·법학) 국제관계학과는 지난달 26·27일 학생회 주최로 UN창설 50주년기념 심포지움을 봉정사에서 가졌다.

김희오 교수의 기조발표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본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실습 실시

교직 이수자들의 교육실습이 오늘(6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경주지역 및 타지역 중·고교와 유치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실습학교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93곳 2백 51명 중 △경주시 중·고교 24곳-1백 47명 △타지역 중·고교 60곳 -89명 △유치원 9곳 -15명등이다.

임석대동제

96 온방골 희망찾기

5. 14~17

새로운질서 미래연대

제13대 총학생회

'96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공고

1.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 '96년도 전역자
   - '90. 12.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
   - '88. 12.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 간부
   - 41세 이상의 간부(장교/하사관)
   - 사무직(조교포함) 및 기능직 예비군
3. 교육시간: 8시간
4. 교육일정

5. 27(월)	5. 28(화)	5. 29(수)	5. 20(목)	5. 31(금)
경상학부, 법(야), 경상학부(야), 법, 경영학과, 경영(야), 법정학부, 자연과학부	관광경영, 관경(야), 정보산업, 정산(야), 전자계산, 전산(야), 국제경제, 중문	생물, 화학, 회계, 일문, 고미사, 미술, 전산통계, 국문	사회체육, 국악, 국제관계, 한문, 인문과학부, 국사, 철학, 불교, 영문 경제학, 행정	사회복지, 산안공, 수학교육, 생화학, 조경, 한의학과, 의학과, 대학원, 교직원

5. 교육장소: 1대대 동천교장
   - 경주시청 동천청사에서 산업도로 건너 500m지점 (백율사 절 뒷편)
6. 복 장: 예비군 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7. 휴 대 품: 신분증, 주민등록증 지참
8. 특별유의사항

◈'96년부터 다음 사항을 특별히 강조하오니 필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가)지연 도착자(08:00 이후) 절대 입소 불가(위병소 엄격 통제)

나)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고무링, 허리띠 1가지라도 미착용자 절대 입소 불가

다)'96년도 예비군 기본 교육은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로서 교육소집하오니 참석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라)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770-2071~2)로 문의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예비군 연대장

자매대학 자비연수자·교환학생 선발

자비연수, 학정인정 혜택

교환학생, 필기·회화 등의 전형 치뤄야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민윤리학) 학술교류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해외 자매대학 자비연수 참가자와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자비 어학연수는 △대상대학=메인 주립대, 하와이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MSU) △선발인원=대학 당 20명 △특전=학점인정(해외영어연수=3학점)으로 연수기간과 경비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청서는 오늘(6일)부터 13일까지 학술교류부에서 접수한다.

교환학생 파견은 △대상대학=MSU, 일본 대정대학, 중국 남경대학 △파견기간='96년 2학기부터 '97년 1학기까지(1년간) △자격조건=본교 4학기 이상 수료자(4학년 제외),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MSU의 경우 토플 5백20점 이상인 자로 파견조건과 선발일시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선발전형방법은 필기, 회화, 면접, 학교성적을 반영하며 접수는 오늘(6일)부터 13일까지 학술교류부에서 받는다.

이과대 점거농성 철회

점거 장기화···교수·학생 불신 커져

이과대 학생회(회장=박노칠·수학4)는 점거 41일만인 지난 4월30일 점거농성을 철회했다.

박노칠 이과대 학생회장은 "예상보다 점거기간이 길어지자 문제해결보다는 점거자체가 목표인듯 되어버렸고 힘을 모아야 할 교수와 학생간의 불신만 커진다고 판단, 지난 26일 전학대회에서 점거농성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회 측의 요구안이었던 '교수, 학생 논의구조 상시화'와 '이과대 독서실 문제 완전해결'에 관한 부분은 점거기간동안 논의가 진행돼 오는 10일 교수·학생 면담을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과대는 지난 3월20일부터 위사안외 자치공간확보, 부당한 등록금 인상 철회, 일산 캠퍼스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점거농성을 벌여왔으며, 앞으로 일산 캠퍼스 이전반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제1차 전동대회 개최

학관공사 문제 관련 협상 계획

동아리연합회(회장=최동현·국교4)는 지난 4월25일 오후6시 연화원에서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96년 1차 전동대회의 보고 및 처리안건으로 △총노선 △방중사업보고 △1학기 동연 사업계획보고 △집행부 인준 △각 운영위 및 집행국 사업계획 △공간문제와 추가공사 요구안 등이 논의되었다.

추윤아 부동연장은 학관공사문제와 관련해 '공사가 끝난지 한달이 되기도 전에 벽에 금이 가고 옥외 지하에는 문턱이 낮아 비가 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측이 당초 약속했던 복지안도 부분적 수용에 그치고 있다"며 "각 동아리마다 추가공사 요구안을 받아 빠른 기간내에 학교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동대회에는 총 61개의 동아리 중 50개 동아리가 참여해 예년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3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들이 끝까지 함께해 전동대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것이 왔다··· 도서관은 좌석 독점방지를 위해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 좌석에 두고간 물건을 일괄 수거 했다. 사진은 다음날 아침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자기물건을 찾아 헤매는 학생들. 〈이태훈 기자〉

◇생협 창립 난항

정관 및 약정서 내용 호흡 불일치

구성원간 신뢰·관점 통일돼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창립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3월 27일 있었던 생협설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 외교학) 6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오는 10일로 창립총회 일정을 결정했으나 정관 및 대학당국과의 약정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일정이 늦춰지게 된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뒤로 미뤄진바 있다. 이렇듯 2차례에 걸쳐 창립총회가 연기된 속사정은 생협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긴 시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지난달 22일에 있은 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창립일정을 뒤로 미루고 학내 각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차질없이 창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각 구성원들에게 보내져 있는 상태이다.

창립이 늦춰진 근본이유는 아직 생협법이 만들어져 있지않아 대학에서 생협이라는 새법인을 만들때 나름대로 정관과 기존의 학교법인과의 약정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용에서 각구성원들의 호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위원장 김진철 교수는 "정관에 대한 각단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완전한 모습의 생협으로 발족하기 위해 일정을 늦추었다"며 "정관내용에 대한 마찰은 생협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기본원칙이 없기 때문" 이라고 해 빠른 시일내에 생협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이익 잉여금의 처리문제, 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학교측과 생협의 역할분담, 전원 가입제(UNION SHOP) 하에서의 임의탈퇴조항 삽입 등이다. 생협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임대 매장의 임대료가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생협 이익잉여금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잉여금 전부를 복지에 재투자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를 학교에 기부해야 한다는 학교측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발생되는 이익 잉여금의 사용과 시설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 생협중앙회 대학본부 조직담당 박상신씨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기본적 시설투자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은 생협에서 투자를 해야한다" 고 말하면서 "학교가 구성원에게 해야 할일을 생협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재단과 생협간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즉 이러한 신뢰를 생협은 대학사회에 복지공동체 건설로 보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탈퇴자유조항 삽입 부분은 본교생협이 대학이라는 특성상 전원 가입제(UNION SHOP)를 선택한데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복지에 대한 시각이 같아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5월중에 각구성원의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위원회 속에서 정관,약정서,사업내용등에 대한 워크 샵을 통해 기본입장을 협의하고 나름대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생협의 근본 의의는 자주적 인간들이 협동을 매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 있다. 전구성원들의 후생복지의 획기적 전기가 될 생협은 근본 의의를 살려 빠른 시일내에 전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이영규 기자〉

수계대법회 개최

오녹원 큰스님 계사

부처님의 밝은 혜명(慧命)을 잇고 동국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의미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4일 대법당에서 오녹원큰스님을 계사로 수계대법회를 마련한다.

한중철 정각원 법사는 수계를 받는 것은 불자가 됨과 동시에 밝은 지혜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무량복덕의 문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수계의 의미를 피력했다.

수계신청은 오는 8일까지 정각원 사무실에서 받고 있다.

한편 정심회일일수련회가 11일 수덕사에서 개최된다.

새터 사업·예산감사

학교지원 미비와 사업관리 소홀 지적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감사가 마무리됐다.

총대의원회(의장=천성국·컴공4)에서 주관하고 총학생회와 불교대를 대상으로한 새터감사는 사업감사와 예산감사로 나눠져 사업계획과 실제진행, 예산과 지출내용의 비교·평가를 주내용으로 이뤄졌다.

총학생회감사는 사업부분에서 △기획논의 과정에서 생긴 총여학생회와의 마찰 △단위시간의 기획안 점검 소홀 △공연단의 무리한 일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기조와 원칙을 고수하며 큰사고없이 진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예산부분에서는 참가인원 산출과 물품부족, 재정적자가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새터는 학교측의 지원도 미비했고 회비를 미납한 단위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대 감사에서는 사무장 부재로 인한 예산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청산과 계승을 위한 동악인 모임'

5·18의 현재적 과제 해결 위해

'청산과 계승을 위한 동악인의 모임'이 지난 30일 발족했다.

불대·법대·사과대를 중심으로 한 이 모임은 5·18의 96년 현재적 과제인 "완전한 과거청산과 5·18 정신계승"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악내 학생집단의 모임으로서 학생회, 학회, 소모임 등이 결합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 계획은 3대 정치 실천 계획으로 △학살자 서훈박탈과 5·18 기념일 제정을 위한 일만동악 서명운동 △5·18 바로 세우기 운동-조선일보 불매운동, 기동실천 △5·6공 인적 청산운동-국보위 활동 인사의 공직추방, 국회 등원거부 실천이 있고 3대 대중사업 계획으로는 △완전한 과거청산과 5·18정신계승 거리전 △박병규선배 복원사업-학내여론화, 일일호프 및 주점(5월10일) △망월동 성지순례가 있다.

이 모임에 대해 김종길(법학 3)위원장은 "5·18의 명확한 문제제기와 함께 완전한 과거청산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매해 모임을 가져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극 전공인의 '젊은 연극제'

대학로·국립중앙극장서 6개 대학 참여

예술대 연극영상학부(회장=박주경·연영4)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연극과 교수협의회와 국립중앙극장이 공동 주최하는 '젊은 연극제'에 참가한다.

비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연극제'와 달리 '젊은 연극제'는 전국에 있는 연영과 학생들이 1개교 1작품을 가지고 공연하며, 참가학교는 동국대, 중앙대, 단국대, 한양대, 청주대, 상명대등 6개 학교이다.

공연은 각 학교당 2일 3회 예정이며, 일정은 △12일부터 16일까지는 대학로 두레극장에서 청주대와 한양대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공연하며,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17일부터 18일까지 단국대가 유진오닐의 '상복을 입은 엘렉트라' △19일부터 20일까지 동국대가 아이스킬레스의 '클리테 메스트라' △21일부터 22일까지에는 상명대가 아이스킬레스의 '오레스테스3부작' 마지막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중앙대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을 공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행사는 연극전공 학생들의 예술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자극하여 창조적인 대학문화의 발달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객에게는 관람의 기회를 늘려 공연예술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봄농활 제천지역서 실시

2백80여명 참여해 전문농활 기획 마련

2백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봄농활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지역에서 실시됐다. 〈관련기사 5면〉

이번 농활에서 학생들은 낮에는 고추심기, 농토정리, 모판나르기 등의 일을 했으며 밤에는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불공정한 의료보험료 얘기를 듣는 등 농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현재 본교 농활은 의활, 법활 등 전문농활을 실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컴퓨터 전문농활, 풍물교실, 백일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총학생회 김정수 농민학생연대부장(지교 4)은 "학생들이 농활을 통해 고령화, 영세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과 땀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히며 "계속적인 농학연대 활동을 통해 농민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민학생연대사업으로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에 관련한 질의서 납부와 실천행사 등이 준비되고 있다.

한편 총학생회는 봉사학점제를 도입한 타대학의 봉사활동 성공사례를 검토하며 '봉사학점제추진'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황한이와 찬정이'를 만나

'여러분과 함께 작은 실천을···'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문제들을 고민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작은 실천을···' '적극적인 사고만이 우리들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라는 대자보 앞에서 '황한이와 찬정이'는 노래한다.

김황한(체교3)군과 박찬정(수교2)군은 지난 4월 둘째주부터 다향관 식당앞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다.

-공연의 특별한 계기는.

=등록금, 공간확보, 학내복지 문제와 숱한 열사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알아야 할때라고 생각했다.

-기금마련 목적은.

=우리 앞을 스쳐갔던 문제들을 알리고 공론화시키는데 필요한 선전물을 만드는데 만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언제까지 이 공연을 할 계획인지.

=힘 닿는 때까지···

-학우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은.

=흔히들 말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동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지은 기자〉

개교기념 무료배식

다향관 동국관 보리수서

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에서는 '개교 90주년 기념무료배식'을 내일 하루동안 다향관 동국관 보리수에서 실시한다.

배식메뉴는 잔치국수, 떡, 요구르트 등으로 잔치국수가 다향관 4천그릇, 동국관 3천 그릇, 보리수 1천그릇이 준비되며 평일 영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배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생협 설립 발기인회의 95년도(95.3~96.2)결산회계감사가 신한회계법인감사로 지난 2, 3일 양일간 실시됐다.

대동제 오는 14일부터

동국의 자부심 실현 자리

서울캠퍼스 96 목멱대동제 일정이 오는 14일부터 17일로 확정됐다.

'교육재정확보와 동국발전을 위한 개교 90주년 맞이 대동제'를 기조로 하는 이번 대동제는 △14일=통일선언일 △15, 16일=동국의 날 △17일=민족자주의 날로 정해졌고 세부행사 계획은 다음 주중 확정된다.

황인구(야간영문 4)부총학생회장은 "90주년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동국의 역사성과 자부심을 대동제 속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이번 대동제의 의의를 밝혔다.

7일 캠퍼스 차없는 날

원활한 행사진행 위해

학생처(처장=곽준규·교육학)는 개교 90주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일(7일)을 '캠퍼스 차없는 날'로 지정했다.

'캠퍼스 차 없는 날'은 캠퍼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 실시되어왔다.

학생처는 "당일 열리는 열린음악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재호·김기문교수 도서기증

중도에 5백47책

본교 신재호(전자공학)교수와 포항공과대학 김기문(화학)교수가 중앙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학)에 5백47책의 도서를 각 지난3월 19일과 1월21일에 기증했다.

신교수는 교통회로 이론 등 1백99책(동서 54책, 양서 1백45책)을 김교수는 Inorgarnica Chemica Acta, Joural of Organo metalliic Chemistry, Inorganica Chimica Acta letters, Ino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등 총 3백47책을 기증했다.

불대 공간문제 해결 미비

협상과 다른 상황에 반발

불교대 학생회(회장=방춘배·선4)는 공간문제에 관한 질의서를 6일, 학교측에 보내기로 했다.

학술문화관으로 이전되면서 수반되었던 문제들은 학교측이 전용강의실 배정, 학부자치공간 확보등을 약속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하였으나 경주 한의학과 학생들의 강의실을 불교대 공간에 배치하고, 이전키로 하였던 교수연구실이 다 옮겨지지 않는 등 협상결과와 다른 상황을 보이자 이에 학생회측은 결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질의서의 내용은 △전용층 문제에 대한 답변 △한의학과 공간에 대한 중앙차원의 논의와 대안제시 △2학기에 주어질 전용강의실에 대한 계획 등이며 오는 10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회·전·무·대

보물찾기

○···5월의 첫날 도서관 1층에서는 한판 보물찾기가 벌어졌다는데.

도서관은 좌석을 독점하는 학생들때문에 지난 30일밤 11시30분이후 두고 간 물건을 일괄수거처리했고 다음날 아침 수거당한 학생들은 책과 방석이 가득히 쌓여 있는 사이를 오가며 보물찾기에 참여하게 된 것.

일괄수거한다는 공고는 수차례 붙었지만 학생들은 본척만척 설마설마했다고.

책 사이를 오가며 한학우 왈 "설마가 사람잡네"

상록수의 교훈

○···5월1일, 메이데이를 맞아 교내는 자보와 민중가요로 가득한데, 학우들은 이날의 의미를 알지못하더라.

이유인즉,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엔 관심을 두지 않는다하니.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이래서야. 그많은 자보에 눈길 한 번 가지 않는지···

이에 본회전무대자 '상록수'의 글귀 하나 읊조리니, "잠자는자 잠을 깨고 눈먼자 눈을 뜨이소"

고향의 맛

○···22일부터 가스메터기폭발로 영업을 중단했던 다향관이 드디어 29일 다시 영업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다시 활기를 찾은듯.

다향관의 휴관은 그동안 명진가든이나 동국관을 끝없이 이어지는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뤄 중간고사기간임에도 식사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했는데.

이제 다시 영업을 시작한 다향관으로 생활의 제 궤도를 찾은 한 학우, 다향관에서 식사를 하며 "음, 그래 바로 이맛이야"

금붕어의 공간투쟁

○···시원하게 물을 뽑아내며 학우들에게 사랑받는 분수대.

그곳에는 화려하게 뿜어내는 물줄기가 있는 반면, 물밑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있는지 없는지 몇안되는 금붕어들.

물을 채운뒤에 물관리에 신경쓰지 않는 학교측과 분수대 물에 함부로 오물등을 버리는 학생들 탓에 탁해진 물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열악한 생존환경속에 물밖 고개를 삐쭉 내민 금붕어 한마디 "공간투쟁, 학생들만의 몫은 아닐테죠(?)"

개교기념 행사 일정

▲기념법회=오늘(6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고은시인 초청

▲연등점등식=오늘(6일) 일몰시간경 불상앞

▲개교기념식=8일 오전 10시30분 중극장

▲KBS열린음악회=7일 오후 6시 대운동장

▲국보·보물 귀중본 전시회=7일부터 24일까지 박물관 2층 특설전시장

▲중국민속품 전시회=6일부터 10일까지 학술문화관 전시실

▲동국인 저작도서 전시 및 특별판매=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도서관 앞

▲기념연극제=10일부터 12일까지 학술문화관 극장

학과소식

생명자원과학부

'학부가 나아갈 길' '제3캠퍼스 이전문제'를 안건으로 오는 5월10일 제4차 학부총회를 갖는다.

국어교육과

2학년 문학답사를 13일부터 16일까지 전라도일대에서 치룬다.

교육학과

정기집회가 오는 10일 오후 5시 소강당에서 열린다.

영상매체비평

왜곡된 현실속에서 기록영화는 진실을 증언한다

— 영화편

정 재 형

〈연영과 교수·영화 평론가〉

진정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극영화보다 기록영화를 보는 것이 낫다. 현실은 항상 진실을 감추고 왜곡한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첨꾼이며 도피처를 제공하는 악마같은 안내자이다. 기록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순수한 시골뜨기로 나타나 세상은 모두 거짓이야기라고 증언하며 모두가 공감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투사로 혹은 예언자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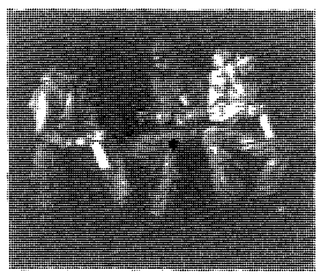
지난번에 열린 제1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는 우리 현실에선 보기 드물게 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는 축제였다. 기록영화는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 기록하지만은 않는다. 기록 영화란 진실을 파헤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후프 드림'은 화려한 농구선수의 성공에 대한 꿈과 그 스타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를 추궁한다. '파나마 사기'는 미국이 파나마에 대해 취했던 조치와 대우가 얼마나 부당했던가를 고발한다. 미국의 공영언론이 취급했던 사건의 전모가 결국 잘못되었고 그건 사기라는 점을 밝히는 과정이 이 영화의 전부이다. 한국영화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는 폐교위기에 놓인 시골의 한 초등학교의 눈물겨운 투쟁을 담고있다. 한 초등학교의 폐교조치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커다란 실책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부당함에 저항하는 외로운 싸움을 관객들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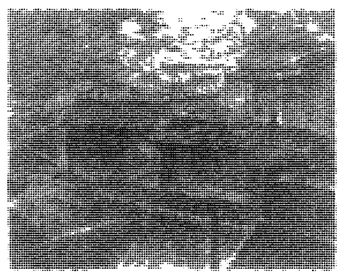
기록영화는 더이상 종래의 영화가 아니다. 기록영화는 현실의 그럴듯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직함을 추구한다. 기록영화는 영상을 통한 감동적인 삶의 체험을 동반하므로 그 어떤 허구를 영상물보다도 벅찬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게 한다. 기록영화는 삶이 객관화되었다고 안심하는 관객들에게 삶을 여전히 주관적으로 정의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영화는 가진자의 횡포를 고발하고 빼앗긴 자들의 분노를 형상화한다.

기록영화는 한 사회의 문화적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한다. 기록영화가 발달할수록 그 사회는 열린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기록영화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에 기록영화는 비제도권영화의 대표적 존재였다. 90년대에 들어와 기록영화는 이미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것이 기록영화든 극영화든 그저 재미있으면 본다는 식이다. 물론 기록영화는 극영화보다 훨씬 재미있다. 극영화가 아무리 특수효과로 현실을 박진감있게 묘사해도 실제의 사건을 그대로 포착해낸 기록영화의 흥미를 따라가진 못한다.

게다가 이제 기록영화는 현실을 대체한다. 걸프전과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재난이 그대로 TV에 생중계되었다. 현실은 극영화보다 더 영화적이다. 더이상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든 현실은 그대로 영화다.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여과하지 않는다. 기록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시대의 가장 감동적인 영상물인 것이다. 이제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얼마나 정확히 드러내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근로자 문화 예술제





노동자 땀방울 깃든 작품 전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철역, 그것도 청와대와 많은 문화유산들이 인접해 있는 경복궁 역에서 제17회 근로자 문화 예술제 서울미술전시회가 이달 2일 열렸다.

근로복지공단과 KBS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노동부와 문화체육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철 경복궁 역 전시실에서 이달 7일 까지 열리며 회화 28점, 서예 59점, 수공예 28점, 사진 72점 등 총 1백 87점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출퇴근 길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천 2백만 근로자들의 문화예술 장려를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아래 개최된지 17년째인 이 행사는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근로자들의 작품이라 해서 알게 모르게 평가절하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96년 기준으로 시상인원 총 313명(단체포함), 시상금액이 총 6천 7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지원도 비교적 나아졌고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미술뿐만이 아닌 음악, 문학, 연극에 걸친 폭넓은 행사분야로 종합문화예술상으로써의 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는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먼저, 근로자 문화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접수기간은 미술분야 매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문학·음악·연극분야 매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46개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상훈격은 국무총리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연기상, 연출상, 특별상, 장려상, 입선 등이며 각 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문화 탐방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번 행사는 이 달 7일까지 미술분야 지방대회(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포항)를 마친 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수상작품 및 초대작품 전시회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한 9월 달부터는 문학·연극·음악분야의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열리게 돼 더욱 풍성한 근로자들의 잔치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별행사로 이 달 12일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근로자 백일장을 개최하며 다음 달 4월부터 13일까지는 포항실내체육관과 여천공단 흥국실내체육관에서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여 노사한마당음악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곽증영씨는 근로자문화예술제 초대의 말에서 '노동현장에서 건져진 주제와 형상이 캔버스에 올려진 작품, 인간 정서의 애틋한 마음이 손끝에 담겨 우리의 정서가 읽혀지는 작품… 어느 하나 진실함과 땀방울이 버무려져 있지 않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노동뿐만이 아닌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인 예술로써도 우리 곁에 어느덧 서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동안 근로자들을 바라 보았던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함께 걸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근로자문화예술제가 바로 그것의 한 걸음이다.

〈김상만 기자〉

대학가의 U·S·A 문화

미국의 로큰롤황제 앨비스 프레슬리와 섹시스타 마돈나가 유혹의 눈길로 바라본다. 시끄러운 팝음악 소리에 귀가 멍해지고 현란한 뮤직비디오에 정신을 뺏긴다. 주위에는 3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Mallboro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즐겁게 얘기하고 있다. 각 테이블 위에 놓여진 재털이에는 'Made in U·S·A'라 적혀있다. 학교주변에 생긴 어느 술집안의 풍경이다. 마치 미국의 한 술집에 들어간 듯한 생각이 들 정도의 분위기이며 음악, 조명등은 평범한 술집과 사뭇 다르다.

본교 주변의 상가를 살펴보면 순 외래어로 표시된 간판이 눈에 부쩍 띄고 들려오는 음악 또한 '인기가요 BEST 10'에서 들어본 노래 아니면 팝송이다. 옛날, 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에 인기를 구가했던 조촐한 소주집, 막걸리집은 찾기 힘들어졌고 LOSON, BASKIN ROBINS, RED DOG과 같은 외국 체인점 가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혜화동 대학로에는 외국기업체인점 이름을 열거하기가 힘들정도로 외래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학교 주변의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다가온 미국의 향기가 짙은 상점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것도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문화 시평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가게 주인들의 상업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더많은 이윤을 구하기위한 그들의 노력이자 속셈인 셈이다.

운영자들이 대학생들의 욕구만에 부응해 외국풍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에만 비난을 가할수 없다. 외래문화의 빠른 확산에 비해 제동장치가 거의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기호에 맞는, 자극적이고 이색적인 외래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것에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외래문화의 유입은 슬며시 대중들을 상호유대 관계에 뿌리를 둔 전통문화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대중매체의 영향으로부터 생겨난 다양하고 이색적인 욕구로 전통문화를 외래문화로 대체시킨다.

대학생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졌다.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와 호기심의 유혹으로 각 개인의 욕구충족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때이다.

문화평론가 조병준씨는 "외래문화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대학가 주변의 외래문화에서의 극단적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선정주의와 폭력주의와 같은 왜곡된 의래문화가 늘어나는 것과 대학생들이 지나친 소비경향을 보이고 호기심에 못이겨 껍데기만 보고 현혹된다는 점이다"라며 미국풍 상점이 늘어나는 것이 상점 주인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과잉 수요에 있다고본다.

미군기가 들어있는 옷을 입고 일제, 미제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탓할 수도 없고 이런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도 없다. 단지 필요한 것은 넘쳐나는 외래문화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넓고 깊은 주체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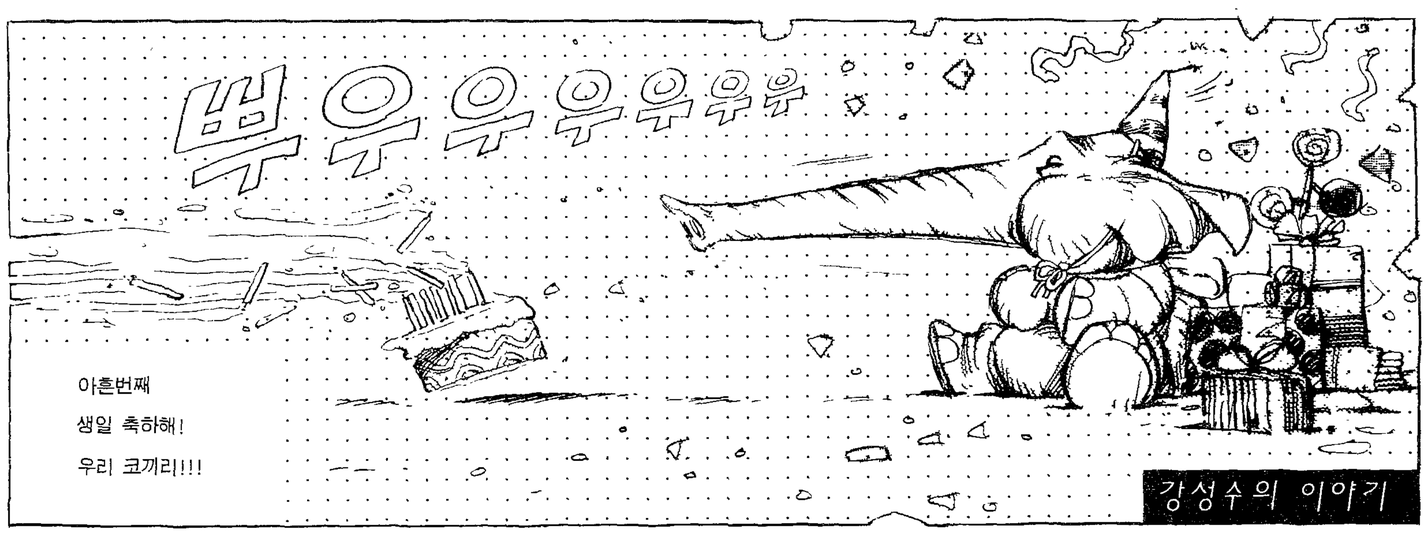
〈한상용 기자〉

메아리

효(孝)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 구한말의 일이다.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인 쇄국정책으로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와 단절되어 있던 조선에 쇄국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고 서양문화 중 하나인 단발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특히 당시 유림 선비였던 최익현은 지금도 유명한 이말을 남겼다. ▲작년까지만해도 아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이 각 종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렸다.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통하는 교수에서부터 사회에서 부랑아로 취급받는 전과자에 이르기까지 생각지도 못할 반인륜적 행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범죄 아니, 현상은 올해에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말세야 말세!'라는 푸념섞인 소리도 하고 또다른 혹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성된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옛말에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말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뜻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부자유친(父子有親)이란 말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허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모두 효(孝)를 중시한 말이다. ▲5월달이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말한다. 이미 '어린이 날'이 지나갔고 내일 모레면 '어버이 날'이다. 또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이 뜻깊은 날들 중 단연 우선은 '어버이 날'일 것이다. 푸르른 5월에,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위하며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부모를 살해하는 것만이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니다. 부모를 가슴속에서 잠시라도 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반인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푸르른 5월에, '가정의 달'인 5월에 부모님을 가슴속에 새겨보자.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건 또는 부모와 함께 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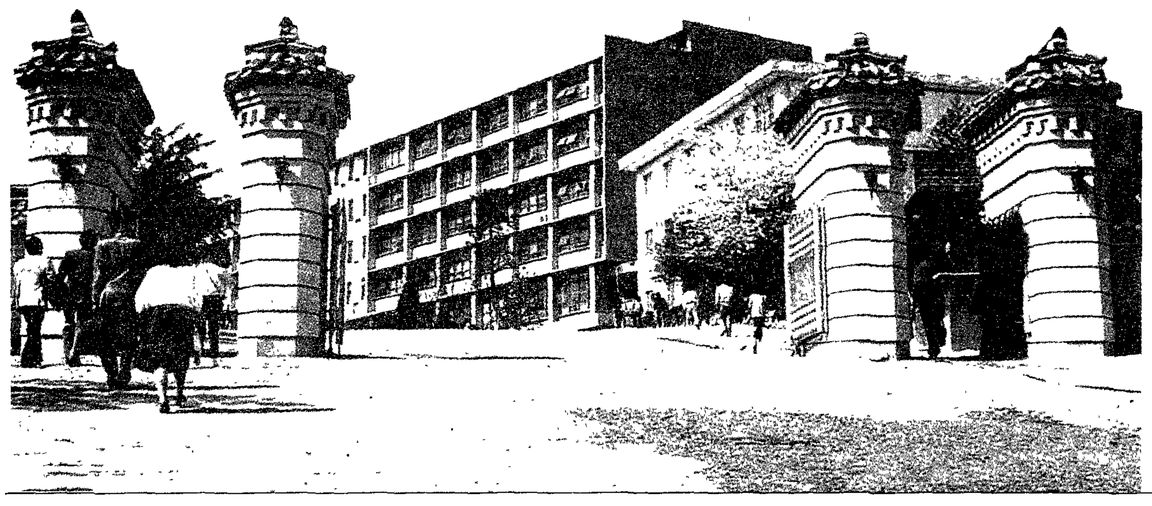
〈용〉



동국대학교 교수초빙

민족사학 90년의 전통과
통일시대 21세기의 비전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동국대학교!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
신세대의 참스승을 모십니다.



1996학년도 제2학기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학 부(과)	전 공	초 빙 분 야
전산통계학부	전산통계학	컴퓨터구조
경찰행정학과		경찰학
경 상 학 부	정보관리학	경영정보시스템
전자·전기공학부	전 자 공 학	초고주파공학 통신공학
	전 기 공 학	물성 및 절연재료
식 품 공 학 과		식품공정공학 식품독성학
국 어 교 육 과		고전 시가 및 구비문학론
역 사 교 육 과		서양사(근현대사)
수 학 교 육 과		수학교과교육 및 수학교육사

▶경주캠퍼스

학 부(과)	전 공	초 빙 분 야	
불 교 학 부		선학(중국선종사상)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방법론(가족치료)	
미 술 학 부		서양화(구상)	
전산정보학부	전 자 계 산 학	전산공학 전산과학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	
법 정 학 부	행 정 학	재무행정	
한 의 학 과	기 초	원전 · 의사학 한방생리학	경혈학 방제학
의 학 과	기 초	유안해부학 발생학(중추신경계) 예방의학	생화학 약리학 생리학
	임 상 (포 항 병 원)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산부인과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2. 자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학, 예능계열은 예외) 인문, 예능계열은 1951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 사회, 자연계열은 1956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의학계열은 예외)
다. 국제적인 우수논문 또는 연구업적 보유자는 심사시 우대하며, 연령제한 없음 (SCI,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 저명학술지에 탁월한 논문을 다수 게재한 분)
라.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
가. 이력서(전공분야 및 전화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판사진 부착) · · · · · · 3부
나.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 · · · · · · 3부
다.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 · · · · · 3부
라.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 · · · · 각 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서류) · · · · · · 각 1부
바. 연구실적물(학위논문과 '92 9.1 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 · · · · · · 각 1편
사. 전문의 자격증 사본(의학계열 임상분야 지원자에 한함) · · · · · · 1부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1996년 5월 20일(월)~5월 22일(수) 17:00까지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단, 경주캠퍼스 의학과 임상분야 지원자는 동국의료원 총무과로 접수

5. 기타
가.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나. 서류 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신임교원의 임용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의 계약제임.

※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분은 석좌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원, 객원교원으로 특별히 초빙할 수 있음

서울캠퍼스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 260-3113~3114
경주캠퍼스 ——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61) 750-2003~2004
동국의료원 총무처 —— 780-350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80-1, (0561) 770-8112~8113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